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基進

繁峙縣城占領
北門으로進入、敗兵掃蕩
代州方面에敵을追擊

【大同三十日發同盟至急報】○○軍 二十九日 午後九時發表 ○○部隊는 今日 午後七時二十分 繁峙를 占領하엿다

【茹越口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 午後四時 繁峙縣을 陷落시킨 我○○部隊는 同七時 北門을開하고 堂堂히入城하야 敗殘兵을 掃蕩하는同時에 後藤部隊의 先鋒部隊는 敵을追擊하야 代州方面을 進擊中이다

總退却敵에殲滅砲擊

【茹越口二十九日發同盟】山西의 要地繁峙縣城은 마치내 我軍에 陷落되엿거니와 이보다먼저 我○○軍에 包擊된 繁峙縣城의 支那軍은 動搖하기 始作하야 二十九日午後三時二十分 自動車五十輛을 先頭로 代州方面으로 總退却을 開始하엿다 縣城西方高地로부터 進擊한後 藤部隊는 支那軍에對해 火力의 協力을어더 殲滅砲擊을 퍼부어 敵에大損害를 與하엿다

알프스戰에도比할 雁門嶺突破戰

【茹越口二十九日發同盟】後藤部隊는 二十九日 마치내 峻險雁門嶺의 天險에依據한 敵의堅陣을 突破하고 나폴레옹의 알프스越降에도 比할만한 山岳戰史의一頁을裝飾하고 午後四時에는 代州平野에 進擊하야 山西의 要衝繁峙의 堅陣을占領하고 城門의鍵도고피 日章旗를 날리엿다 後藤部隊는 雁門嶺의 堅陣을拔하기까지 一日二夜 不飮不食 雨飛하는 敵彈을무릅쓰며 茹越口 토치카陣地를 爲始하야 蜿蜿十餘里에 亘하야 構築된敵의堅陣百數十을 擊破하며 一步一步前進하야 重疊한山岳을 넘고 千仞의溪谷을 건너 進擊하엿다 這間後藤部隊는 十數回에亘하야 敵大部隊를 包圍殲滅하엿는데 敵의死體는 各陣地에 累累하게 橫在하야 어떤地方에서 有名한 蠶其他에 떠키며 또 때마침 내리는秋雨에 맞고 잇는바는 보는者로하야금 悽慘의情을늣게한다 後藤部隊는 이山岳戰에依하야 戰死十 負傷數十을내엿는데 戰傷者는 急造한籠에依하야 應縣에後送하야 野戰病院에서 戰友의두터운 看護를받고잇다

雁門嶺山岳戰에서 武田部隊長戰死

【茹越口三十日發同盟】○○部隊二十九日 午後八時發表 雁門嶺分段山岳戰에서 ○○隊는二十七、八、九의三日間武田部隊長以下若干名의 戰死者를내엿다

東光과獻縣도陷落

【天津三十日發同盟】午前九時 軍司令部發表 一、津浦線에 沿하야 追擊中의 我部隊는 二十九日 東光을 占領하고 또 南方으로 急追中인데 東光은 滄州、德州의 中間에잇는 縣城으로 津浦線上 河北省 境을 相距한 三十粁의 地點에잇다

二、子牙河 方面에잇는 我部隊는 二十九日正午 獻縣을 占領하고 또 東南方으로 向하야 敵을 急追中이다

上海戰線 全面的前進

【上海廿九日發同盟】佐野部隊麾下 各部隊는 西寶興路에 沿하야 果敢한 進擊을 繼續하고 宮崎部隊는 午前十時 寶源路 上海吳淞鐵道線까지 前進하는 一方十師部隊는 敵의 根據地協大油廠의 敵兵을 午前十時에 殲滅하고 이를 占據한後 더욱 前進하는中이다 그리고 今井部隊는 虬江路에 沿하야 攻擊前進하야 이미東街의一部를 占據하엿다 午前十一時現在 我損害는 極히 輕微하야 負傷二名뿐이다 敵의損害는 爆擊에依한것을 加하면 莫大한數에 達하는模樣이다

繁峙陷落은 山西軍에打擊

【茹越口二十九日發同盟】後藤部隊는 二十九日午後四時五分繁峙縣城을 完全히占領하고 寺田部隊는 東門으로부터 堂堂 部는 蠶集으로서 名高한 五臺關이엿스나 마침내 我軍의 猛擊에依하야 陷落되엿다 繁峙縣城은 山西省의要所를喪失한것은 山西軍에對하야 大端한苦痛이다

隊를先頭로 東門으로부터 城頭에높히 日章旗를 휘入城하야 我軍의 入城으로繁時縣城附近에잇든 支那軍의 一部는 山方面의 山中으로 逃走를開始하엿다

神宮祭主宮慰問次 久邇宮殿下 三十日午前御西下

【東京電話同盟】神宮祭主宮久邇宮多嘉王殿下께서는 腦病으로요전부터 京都御殿에서 다만御療養中이신데 요즘御病狀이 조금도 滋味업스사 宮家職員一同이 御憂慮하고잇다 殿下께서는 御年歲六十三으로서 皇后陛下의 御叔父이신데 久邇宮朝融王殿下께서는 三十日午前九時東京驛御發 御臨問次로 御急遽히御西下하시엿다

英航空省、支那向 軍用機(十二機)輸出許可
義勇兵操縱士도支那向發

【倫敦二十九日發同盟】A·P倫敦支局의 探知한바에 依하면 英國航空省은 一人乘軍用機 十二機의 支那向輸出을 許可하엿다한다 右는 그로스타飛行機 製作所 製의 時速二百五十哩의 快速을 가진것으로 英國人 操縱士도『義勇兵』으로서 飛行機와 함께 支那로 向할려이라고 傳한다 對西班牙向 軍需品의 輸送을 禁止한 英國이 如斯한 措置에 나온것은 注目된다

二十三個國決議에 米國도支持를表明

【주네브廿九日發同盟】廿三個國諮問委員會의 米國代表하리손公使는 廿九日 委員會席上에서 日本空軍의 支那都市爆擊非難決議에 關하야 左와 如히 言明하야 米國政府는 右決議를 支持한다는 言明을 表明하얏다 余는 國務省에 對하야 日本海軍의 支那都市爆擊非難에 關한廿三個國諮問委員會의 決議를 通報하엿다 米國政府는 이미 數回에 亘하야 日本政府에 通告한바와가티 此種爆擊은 不當한것으로 國際法과 人道의 諸原則에 背馳하는것이라고 思惟하는것이다

聯盟技術協力委員會

【주네브二十九日井上同盟特派員發】聯盟技術協力委員會는 二十九日午前開會되여 對支保健援助에 對하야 協議를 繼續하엿는데 日米의 思惑을 念慮하야 何等 決定에는 到達하지못하엿다 三十日 十三個國諮問委員會에서 日本維對代表가『援助가업다면 棄어라도 라』고哀訴한것을 利用하야 支那의體面을세우기爲하야 衛生隊를支那에派遣하는程度로 一切를모르는척하고 지날것이라고傳한다 何

英産業聯盟 在支權益對策協議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國産業聯盟과 各種支那關係團體는 二十九日서·쇼지·막도고將軍司會下에 聯合協議會를開하고 日支紛爭에依하야 蒙한英國의在支權益의損害에對한 對策에對하야 協議하얏다 各産業界代表는 서로 어러서서 意見을開陳하엿는데 大體의意見은 英國産業界가蒙한損害는 軍事行動에依하는것보다는 오히려 通商上의制限에 依한다는데 一致하고『今後支那에잇서서의英國의産業에損害가잇칠것을 防止하는同時에 從來蒙한損害에 對하야는 責任의所在에 依하야 日支雙方의 賠償金을 要求하고 또支那와의 通商交通施設의復舊를 圖하도록 政府에善處를 要請한다』는旨의決議를採擇하엿다 協議結果로서事態의 推移를注視하는 同時에英政府는 英國商船에 對한 佛國伊國關의 汽船同樣吳淞港을 復活할수잇도록 特別委員을 주거를 要請하도록 處置하여 또 支那에權益을가진 英國各産業代表는 右聯合會와 別個로 二十九日會合을 開하고 日支問題 協議하얏다 對日보이콧트問題는 議題에올리지아니하엿다

如斯이 諮問委員會 二十九日午後의 會合의結果를 기다리지안코는 協力委員會의態度는 判明치안타

諮問委員會
小委員會設置案可決

【주네브廿九日發同盟】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는 二十九日午後五時開會되며 먼저 議長으로부터 議者委員會에서 可決한決議案이 總會를 通過하엿다는旨를 報告하고 다음佛國代表로부터 極東委員會의一般情勢를檢討하고 二對策을 委員會에報告시키기爲하야 小委員會를 設置하라 고提議하고 이에對하야 英國代表 고速하고나서 英國은 濠洲代表가 提議會에서言明한極東關係國會議召集案을 受諾한다고 言明하엿다 다음 小委員會設置의 表決에 對하야 加奈陀代表는 여기 吾人은 戰爭行爲를 中止시키기爲하야 努力을 繼續하 지안하면아니된다 日支紛爭은 單純히 兩當事國만의 問題가아니오 諸外國의 關係잇는 國際紛爭이다 따려 賛意를表하야 고 如斯한委員會의 設置에 對하야 本國政府가 將次한 新聞報道又는 支那側의 一方的情報에 依하야 輕率한措置를 取하지안도록 希望을 披瀝하엿다 如斯한 小委員會設置案은 可決되엿다 다음小委員會의 權限問題에 옴겻는데 議論이 沸騰하야 意見이一致치안코 마침내 結論은 三十日의 委員會에 미루기로하고 午後七時十五分 散會하엿다

英政府重要閣議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 二十九日午後首相官邸에서 定例閣議를 開하고 極東과 西班牙問題에對하야 重要協議를 거듭하엿다

富井參事官 英政府에眞相說明

【倫敦二十九日發同盟】倫敦駐箚帝國大使館 富井參事官은 二十九日午後三時半 英國外務省에가 도간 外務次官補를 訪問하고 最近의 所謂 非戰鬪員爆擊 其他事態의 眞相에對하야 詳細히 說明하야 英國政府當局의 認識是正에 努力하고 懇談하야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富井參事官은 다 그席上、上海에서 負傷한 휴겟센大使에 對하야 五千磅의 慰勞金을 贈與하는 案을上程可決하엿다

伯林市民歡送裡에 무首相歸還

【伯林二十九日發同盟】무솔리니首相은 二十五日以來 伯林市에 到着한以來 前後五日間 獨逸各地에서 熱誠스러운 歡迎을바더 獨伊兩國의 提携强化의 重大使命을 맛치고 二十九日午後四時特別列車로 伯林驛二卦停車場을 出發하야 히틀러總統以下 伯林市民의 熱狂的歡送裡에 一路羅馬로 歸還의途上에 올랏다

히總統 近近伊國訪問

【伯林二十九日發同盟】무솔리니首相은 今回獨逸訪問에 際하야 獨逸官民의 熱誠스러운 歡迎에 答하기爲하야 히틀러總統에 對하야 伊太利를 訪問하도록 招待하엿는데 히틀러總統은 欣然히 右招待를 受諾하고 近近伊太利를 訪問할것이라고 觀測된다

帝國回答 米政府接受發表
南京爆擊通牒에對해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米國國務省은 去九月二十二日附南京爆擊에關한對日通牒에對하야 東京駐箚그루大使를通하야 日本政府의 回答을接受하엿다는旨를 二十九日發表하엿다 但右回答內容에 關하야는 目下研究中이라는것을 理由로하고 何等發表되지안엇다

伊太利政府도 地中海協定에參加

【巴里二十九日發同盟】英佛伊海軍專門家會議는 二十七日來佛國海軍省에 會合하고 伊太利海軍이 地中海警備에 參加하는方法에對하야 協議를 繼續하엿는데 二十九日에至하야 英佛伊三國代表間에 意見이一致되어 伊太利海軍도 地中海協定에 參加하기로決定하엿다

伊의參加條件

【巴里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 巴里에잇서서의 英佛伊三國海軍專門家會議의 結果伊國政府는미치내 正式으로 地中海警備協定에 參加하기로 되엿는데 伊國의 參加條件은 左와如하다고 解釋된다

一、伊國海軍은 巴레아리크海一帶와 사르디니아島及트리폴리(리비아)沿岸의 警備에 任할것

一、포트사이드市에至하는東地中海는 英、佛海軍과 共同으로 警備할것

南京空爆에對한 帝國政府의回答文
駐日各國大使館에手交

【東京電話同盟】我軍의南京空爆에關하야 英米佛三國政府는 엽서 各各文書로써申請을하여왓스므로 我外務省當局에서는 二十九日夕刻左의 回答文을 駐日各大使館에 通達하엿다

南京空爆에關한 帝國政府回答文(二十九日附)

書翰으로陳上하다 陳者九月二十二日附書翰으로써 帝國軍의南京空爆에關하야 異議를申해온것은閱悉하엿다 米國政府에서도 諒解의 通知대로南京은 他에그類例를 보지못할만큼 最堅固히 防禦된支那軍作戰의 中樞根據地임으로써 同地內外의 軍事的施設乃至機關을爆擊하는것은 帝國軍事目的을達成을爲하야 必要不得已한措置이다 帝國軍爆擊은 右目的을 버서나지안코 無差別的으로 非戰鬪員을 對象하지안는다는것은 勿論이오 事前支那側非戰鬪員에對하여도 警告한것은 右를實證하는것이다 第三國權益과第三國人生命財産의 安全을 될수잇는대로 尊重한다는 帝國政府의 既定方針은 今次爆擊에 際하여도 何等變更함이업는것은 勿論今般貴國官民과軍艦의避難을 申請한것도 畢竟我方의最大한 注意에不拘하고 第三國에不慮의災害를 미치는일이잇슬가바 極力回避하라는意思에 나온것에 他意가 업는바이다 如斯한 帝國軍事前의通告에依하야 作戰行動上적지안흔 制約을바덧슴에 不拘하고 今回와가티 第三國人의避難을希望한것은 貴國政府에서도 充分히御諒解한後 右帝國政府의措置에協力하기를希望하는바이다 또今次支那에잇서서의戰鬪行爲의結果第三國人이蒙한損害에 關하야帝國政府의 意向은 屢次聲明하여온바와갓다 右回答을兼하야本大臣은茲에거듭下에向하야 敬意를表한다 (寫眞은 廣田外相)

敵機保定空襲!
防空砲擊으로南方에逃走

【保定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前六時頃 突然空襲한 敵의飛行機一機가 保定을 空襲하야 爆彈數個를 投下하엿는데 一彈은保定驛에 落下하엿스나 我高射砲의 砲擊으로 卽時南方으로 그림자를 감추엇다 我軍의損害는 輕微하다

○○部隊 鐵角嶺을突破

【大同三十日發同盟】○○部隊二十九日午後八時發表 ○○部隊는 二十八日午後三時 頃 鐵角嶺의線에 進出하야 該方面의敵陣地를突破하야 그리큰抵抗을받지안코 鐵角嶺을奪取하고 該方面의戰況을有利케한後 午後三時지나 靈家庄(繁峙東北方七粁)에 達하엿다

海軍部隊戰況

【上海二十九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午後九時發表

一、海軍航空隊는 二十九日陸軍의戰鬪와協力하야 敵陣의砲兵陣地에 爆擊을加하고 또附近部落의堅固한陣地에依據한 敵에 猛烈한爆擊을 敢行하엿다

一、廿九日 午後七時頃 劉行浦方面에서 我方에 猛擊을 行한 浦東敵에 對해 我砲上艦船은 一齊히 反擊하야 이를 制壓하엿다

總督府報道係 文書課內에設置

總督府報道係는 十月一日부터 文書課內에 設置하고部內各般報道宣傳의任에當하기로되엿다 同係는 井坂文書課長統裁下에堂本事務官、江上囑託外係員四名의陣容이다

大野政務總監 赤十字와陸軍病院에

大野政務總監은 天谷秘書官을 帶同하고 三十日午前十時 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에 第一七六、七救護班結成式에 臨場하야 砲煙彈雨의○○으로 向하는 特志看護婦五十名에 對해 激勵訓示를與하엿다 또午後二時부터 龍山陸軍病院을 訪問하고 名譽의 戰傷兵을 몸소慰問하고 慰問金으로 金一封을 贈하엿다

井上大尉、重石准尉 名譽의負傷

【陽行鎭에서同盟特派員二十九日發】敵의堅壘劉家行을 突破한 ○○部隊의 井上大尉、重石准尉는 決死的突破行으로 名譽의負傷을 입엇다 그리고 長澤軍曹外二名도 各其負傷하엿스나 戰死者는 내이지안햇다

無電機所持한 敗殘兵을捕虜 目下殘敵掃蕩中

【保定中原同盟特派員三十日發】保定陷落後에도 平漢線附近에미처 逃亡치못한 敗殘兵은 處處에 出沒하고잇는데 二十九日午前 高碑店西方 約十四粁附近의 高粱畑約百五十名의 敵敗殘兵이 潛入하고잇는것을 發見하고 卽時全部를 捕虜하엿다 놀랄만한것은 彼等은 武器外에 精巧한 無電機를 所持하고 我軍의狀況을 刻刻通報하고잇는듯한것이다 그런데 保定、高碑、店間運行列車가 夜間敗殘兵의 襲擊을바덧슴으로 目下各驛守備兵은 이를掃蕩中이다

南翔、嘉定을爆擊 廣德飛行場도爆破

【上海三十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午前十一時發表
一、海軍航空隊는 昨日南翔、嘉定을爆擊하고 또廣德에 建造中인格納庫一棟을 爆擊破壞하고 또軍用倉庫一棟을 倒壞시켯다

二、또一部航空兵力은 昨夕江陰을空襲하야 河容砲艦洋艦을爆擊하야 이를大傾斜케하엿다

【旅順三十日發同盟】旅順要港部三十日午前十時發表 ○○艦隊航空部隊는 前日에 繼續하야 二十九日午前隴海、濟寧各地帶의軍事施設을爆擊하엿다 臨沂、濟寧、海口에는 敵機는업다 同日午後 또 ○○機는 徐州를 攻擊하야 北停車場을 爆擊하고 軍事倉庫에有力한 爆擊을 敢行하엿다。 該倉庫는 盛히燃燒하고잇다 徐州飛行場에는 敵機가업고 我方에는 損害는업다

隴海線一帶도再空襲

川本大尉戰死

【天津廿八日發同盟】○○根據地川本守人部隊長(航空兵大尉)은 二十八日午後一時半 原田文男部隊長이 操縱하는 飛行機에同乘하고 ○○을 出發하야 平漢線新樂附近의敵陣地를 偵察中 不幸히敵彈에마저名譽의 戰死를遂하엿다

朔縣城도占領!
偏關神池에追擊中

【大同三十日發同盟】○○軍二十八日午後八時發表 右翼方面○○하야 敵을追擊中이다 朔縣에서는 敵捕虜 砲二門兵器多數 에富하야 我工兵隊는 城門을爆破하고 ○○部隊는 繼續하야어 突入하얏는데 어爆破에際하야 安江工兵大尉는壯烈한戰死를하엿다

二十八日午後十時 朔縣을 占領하고 偏關及神池로 向하야 敵을追擊中이다 朔縣攻擊에 何仟國軍의 騎兵이다 突入 이際

馮前司法相 來月四日入京

滿洲國前司法大臣 馮涵淸氏는 日本內地視察途上 來十月四日午後二時三十分京城驛着「노조미」로入京 一泊後 六日午後二時四十分發日本內地에 赴할豫定

001330

後援聯盟慰問使 來月二日發程

朝鮮軍事後援聯盟으로부터 派遣되는北支○○部隊慰問使 宇佐美少將、朝鮮總督府社會課長及各道代表者一行八名은 來二日午後三時五十分發「노조미」로出發하게되엿다

八面鋒

今日부터 本報는 十四段制를 實施。

◇

同時에 活字全部를 新鑄하야 面目을 一新。

◇

新聞紙面을 每面 一段씩을 더늘린것이 一般으로보면 些少한 일이라할지나、

◇

最近의 新聞發達史를 보면 十二段에서 十三段、十三段에서 十四段으로 飛躍의 痕跡이 뚜렷。

◇

해人數로十八年、그동안段數擴充은二回나 面數로는 最初四面에서 六面에、六面에서 八面朝夕刊에。

◇

또한번뛰어서 八今은 夕刊八面 朝刊四面 合十二面에。

◇

新聞이 時代의 要求에 依한 社會의 反映이라하면 이것을 보아 社會相의 變遷을 짐작할수가 잇다。

人事·集會

◀金善琪氏 英國倫敦大學에서 語學을研究中 十月一日午後三時四十分京城驛着列車로歸國

明十月一日밤부터

◁連夜滿員謝禮▷
劇團靑春座公演
◁待望名劇上演▷

(가나다順)
金金柳李卞卜沈黃
東鑒長東燾元 一
圭峰安胡鏞圭澤松淑
崔申趙池尹李柳金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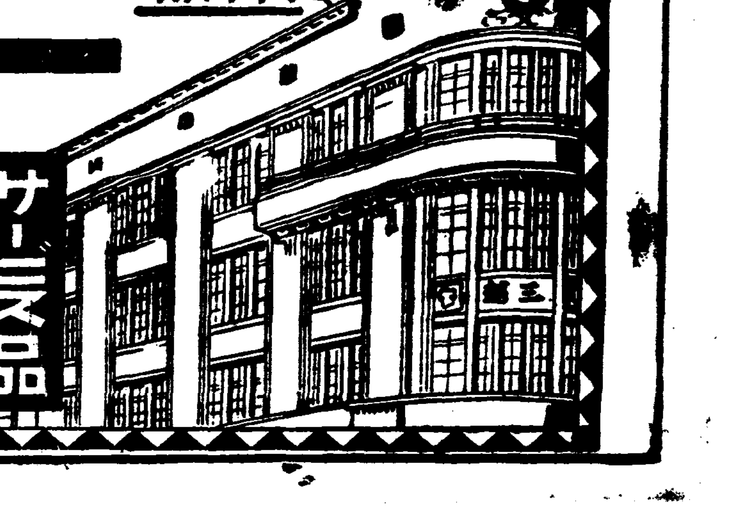
斯界의驍將 李雲芳君 苦心力作篇
悲劇 情劇 눈물을건너온幸福 三幕四場
눈물을건너온幸福? 그러라! 어떻게 오르지 눈물! 눈물의바다를건너서 幸福을! 눈물의 彼岸에 到達한 人生의新片을 그리여우리로 하여금 再三感激케하지안코는 마지안는『明朗한悲劇』으로 愛劇家의好評을기다리고잇다

冠岳山人作
喜劇 거리에서주은淑女 一幕三場
自他가共認하는名作喜劇으로靑春座의上演으로써更히錦上添花의感이不無하다

朝鮮歌舞會 當公演中
南道、西道、名唱總競演!
짜스、舞踊、流行歌、曲技、漫藝、才談 等百花燎亂의大衆藝術의洗禮!

名劇週間今夜卅日까지
閉演午後一時卅分
李雲芳作 葡萄園 一幕
李雲芳作 檢事와死刑囚 二幕
南宮春作 將棋狂受難時代 一幕
開演午後七時十分
東洋劇場

京城 三越의新館落成記念大賣出し
十月一日부터三日까지……舊館新館一齊히◆兒童膳物進呈



サービス品

地階 マーケフト
◆三十錢均一
◆五十錢均一
◆八十錢均一
◆一圓均一
◆足袋賣出し

一階
◆三越サーボン石鹸
◆皮草履賣出し
◆三越銘酒室町賣出し
◆螺鈿漆器眞入賣出し
◆玄米茶ほうじ茶賣出し

二階
◆小紋ステープル…
◆銘仙各種賣出し
◆レーヨン八掛賣出し
◆本絹錦紗八掛賣出し
◆蒲團綿賣出し

三階
◆アフー中折帽子賣出し
◆毛メリヤスシャツ賣出し
◆婦人毛メリヤスシャツ襦袢
◆キッド紳士靴賣出し
◆萬年筆賣出し

四階
◆小型置時計賣出し
◆目覺時計賣出し
◆電氣スタンド賣出し
◆電氣アイロン賣出し
◆アンチンセット眞賣出し

サービス品
京城 三越

來十月四日夜半부터 旅客列車를平常化

二個月間乘客不便도完全히解消

列車時刻表는從前대로

전조선철도의 려객렬차 운전시간도 평시대로 회복실시하기위하야 철도국에서는 그준비를 급히하게되는데 오는 사일 야반부터 일제히 실시하기로되엿다 이에 따라 각사설철도의 렬차운전시간도 모두 평소대로 회복하야 려객이 당분하게될터이라한다 이와가티 렬차운전시간이 평시대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두달동안여러가지로 바라오든 려행객의 불편은 일전히 살아저버리게되엿고 서울 부산사이에 회살가티 달리는 특급「아까쓰끼」와 부산 봉천(奉天)또는 신경(新京)사이를 래왕하는「노조미」「히까리」등 급행렬차들도 모다 일제히 종전대로 출동하기로되엿다

管制認識不足으로 無燈自轉車跳梁

그中에는집숫規則違反者도잇서

警察에서監視取締

지난 팔월이십일밤부터 경성시내를위시하야 경기도일원에 등화관제(燈火管制)가 실시된이후 발서한달이나되여가서 경성시민들도 겨우이관제아래 눈이 익어가거니와 또 이등화관제로 하야 도적이 어둠을타고 도량한다는데해도 엇지안헛는데 최근등화관제를너무 지나치게 인식하므로써 이러난폐해가 또하나 잇다 그것은 현재 실시되여잇는 등화관제는 상시(常時)관제에들어가잇고 아직 경계(警戒)관제에는들어가잇지안흔터인데 일반시민중에는이 상시와경계 또는공습(空襲)관제에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등화관제이라니 불만끄면 더조타는 그릇된생각을 가지고 잇는사람이 만허 상시관제에서는 밤중에 자동차나 자전거의 등불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켜가지고 단여야만할것이 이무등자전거가 여간늘지안흔 현상이다 이무등자전거는 전기와가튼 잘못된 인식에의한 선의의 사람도 잇겟지만 등화관제를틈타서 일부러 위반행위를 하고잇는자가 만허 특히 문등(門燈)과 가로등이 대부분 꺼저잇는 새이골목에서·이러한 무등자전거에 의하야 일반통행인이 적지안흔 고통을받고잇슴으로 경찰당국에서도 금후한층더엄중하게 이무등자전거의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을 세워가지고 밤늦도록한 감시를하고잇다

新炭發送의 車輛을制限

積置場所狹窄으로

경성의장작판매업자는 장작(나무장)는 요지음거의 물건을 압두고 장작이 무척 만히드러밀려서 처치에곤난한 상태이므로 철도국에서는 지난이십일부터 함흥 안구역에다니는 장작실은 화물차는하로에 평균열여섯차만 드러오게하도록 각철도사무소관내에대하야 다음가티 발차제한을 시켯다고 삼십일에 발표하엿다

◀순천(順天)도사무소관내로부터는 한차

◀경남(京南)철도로부터도한차

◀경동(京東)철도로부터도한차

◀경성철도사무소관내로부터는 다섯차

◀금강산전기철도선으로 부터는세차

◀원산(元山)철도사무소관내로 부터는 세차식을 발차하야경성에 드러오게하고잇다한다

遞信記念日에 勤續者表彰式

경성체신분장국(遞信分掌局)과 경성우편국에서는 오는 시월일일 체신기념일에 상당함으로 국장이하 국원 일동은 이날 오전 여덟시반에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계속하야 경성우편국안에서 체신기념식과 근속자표창식(勤續者表彰式)을거행할터이라한다

京城車援聯盟 慰問金釀出者

(二十八日接受分)

五〇〇圓 京城東邦鑛業株式會社 五圓 淸溪町 [illegible] 二圓 竹添町二丁目六五 岩林經二 三〇〇圓 明治屋京城支店 四圓五〇錢 壽町四五六의四三 金鎔漢 二〇四圓六〇錢 京城土木建築業協會員一同 三、〇六〇圓 京城土木建築業協會 [illegible]

原因은失火

馬車夫가돈지갑일코찻다

衛生分室火災原因

이십구일오후여섯시반 위생과 망원분실에서 불이 이러나매 어두어든 마차말열한마리를 데워죽이기까지한 원인에 대하야는 소관동대문서에서 세밀한조사를한결과 드디여 실화로판명하엿는데 이날밤에 이분실에마차꾼으로잇는 리경작(李景作)은 그이가 현금일원칠십전이든 지갑을 일허버리고 이것을 찻고저 성냥을켜들고 마차간을차저다니다가 잘못불이 집혀되기에 옴겨부터 이가티 불이난것이라한다

出發延期

[illegible]

近日中에實施될 一大防空訓練

警戒管制、空襲管制도施行

龍山師團司令部發表

【龍山師團司令部發表】룡산사단사령부관내에서는 근일중에 군민일체(軍民一體)의 방공훈련(防空訓練)을 실시하기로결정하고 각기관각처와 협동준비중이다 이번의방공훈련의 목적은 방공제기관의 종합적훈련을 실시하야 민중에대하야 방공방호(防護)의긴급한바를 리해시켜서 국민이 일체로되여 그방위능력(防衛能力)을 향상함과 동시에 서로의 협동관계(連繫)를 연습하고 더욱더가간에는 등화관제를 철저히하기에 힘써서방공의 완전을 도모하려는것이다 이번의 방공훈련에당해서는 경계관제(警戒管制)를 실시할뿐더러 경보(警報)로서 공습관제(空襲管制)도 실시할터인데이사이에 상당히 장시간 판하일대를 캄캄하게 방호단등의 활동을 시키는동시에 철도를제외한 일반교통기관은 전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정지하게될터이라 모다를 미리 주의해야한다 다만 이때에라도 각종기관의 지휘감독의 임무를가진각 관공청용의 자동차와 소방대(消防隊) 구급대(救急用)등의 자동차와 자전거와신문사통신사용의 자동차와 자전거들은 각기규정한표를부처서 운전할수잇다 공습관제를실시하는동안에 공중과특지의방호진(防護陣)의협의이잇슬터이다 [illegible] 철도의항로표지(航路標識)와 항로표지(燈臺及航行用標識)와 [illegible] 에관한등화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할터이라

種類 ╲ 方法	사이렌	警鐘	電燈點滅
警戒警報	十秒、七秒、十秒	二秒間隔의點打一分間	
空襲警報	一分間	三連點打	數秒間點滅以上三回
空襲警報解除	十秒、七秒、十秒	二秒間隔ノ點打一分間	
警戒警報解除	一分、七秒、五分	•	

◀特種任務에服하는燈火

홍화기간중에 한하야 전조등(前照燈)에 검은차개로 가리우고각거 소정의표를 부친 왕가용(王家用) 관공아(官公衙) 륙군용(陸軍用) 해군용(海軍用) 경찰용(警察用) 소방용(消防用) 구급용(救急用) 체신용(遞信用) 신문통신사용(新聞通信社用)의 자동차등은 경계관제중은 물론 공습관제중일지라도 등불을 끄지안코 그냥두기로한다 왕가를 제한이외에 전기사용자량수(車輛數)의 분배는 따로 정하기로되엿다 방공경보부호(符號)는 다음과가티 정하엿다

傳道局答電中心 知事와重大協議

實行委員長魯解理氏來平

三校問題는어데로?

【平壤支局電話】숭전(崇專) 숭중(崇中) 숭의(崇義)세학교의운명을 최후로결정할 뉴욕외지전도국의 총회경과로 이세학교문제를 래월이십일까지 돈의연기를할것을 요청으로 의미심장한 전보의내용이 한번본보에 보도되자 관계당국자는물론 일반의 주목과관심은 최고도에 달하야 이전부터로이수한 미순회 실행위원장 로해리(魯解理)씨의 일동일정은 이문제당면의 주역자로 비상한 주목을끄을고잇던중 이십구일 오후여섯시반 전기로씨는동반『커나다』목사와함께평양으로와서 이날밤방위량(邦偉良)씨 목사집에서 보내고 삼십일오전 열한시 평안도청으로 상내(上內)지사를차저 문호를굿게닷고 금번 뉴욕외지전도국총회의 회답전보를중심으로 중대한협의를 하는중이다 아즉 회견이끗나지아헛슴으로(보지마감시간까지) 그내용에 대하야는 자세히알수업스나 전문의내용으로보아 세학교문제에 대한 최후의결정은 이미본보에 발표된 전문의내용과함께 긴급 재정위원회의 보고를기다려 시월하순에 다시 결정보고하겟다 하엿스니 대의로 보아 매도(賣渡)와 양도(讓渡)를 절대로하지 안흘것을〃현재대로보류하라〃는 문구에 강조한것으로보며 이것은매도와양도는절대로하지안흘것으로 해석된다 이것과관련되는 폐교이외에 다른길이업는것이 [illegible] 이문제를숭실으로는당국에보고한 금후처치에대한중대협의로 추측된다

"讓渡와賣渡는 絶對로할수업다"

來平한魯解理氏談

세학교문제로 도당국과협의코저 평양까지온 미순회실행위원회장로해리씨는 왕방한기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도당국과 협의한후가 아니면 무어라고 발표할수업다 세학교문제에대하야는 어떤외지전도국답전을기초로 양도든가매도든가는 절대로 할수업는것은 지금이라도 말해둔다 만사는오는시월이십일경 위원회에서 결정될것이다

非公式會見理由로 雙方緘口不語

會見後兩當局者談

【平壤支局電話】로해리씨는 삼십일 오전열한시반에 평남도지사실에서 도지사 학무과장 도시학관들과 만나보고 약두시간동안이나 자세한 이야기를 한뒤에 물러갓는데 기자는 그직후에 지사를차저스니 그는 다음과 가티 이야기하엿다

하여간 어떤 협의는 비공식이기때문에 어야기는 장시간 하엿지마는 나로서는 책임잇는 이야기는 할수업다 선교사측의 태도가 애매하다하므로 그들의 태도를더 살펴보고저한다 다음에 서면으로나 혹은 구두로써 성의를보이면 몰을거니와 그럿치안코서는나로서는 더대답할수업다

또 로해리씨는 경찰서로부터 일체 외부사람에게 말할수업다고 하엿기때문에 말할수업다며 평양경찰서로가서 전중(田中)서장과 고등계주임을 만나보고잇는 말이야기를 하엿다

京城基靑學校 商業科를新設

學校名稱도改名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경성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안에 잇는경성기독교 청년회학교는 대정사년창립이래 야간교수로영어를가르치왓는바 금번 상업과(商業科)를 신설하는동시에 학교일홈도 경성상업학교(京城商業學校)라고 고치기로결정하고 그동안 당국에신청중이든바 수일전 정식으로인가가되엿다한다

京畿管內各地서 虎列刺豫防注射

각지에서 호렬자가발생하야경기도위생과에서는 그방역에만전을 기하고잇다는것은 거보와갓거니와 이제 오는시월하일부터시내여섯경찰서에서 어둡기안후선 약시만오천여명에게 일제히 호렬자 예방주사를 놋케되엿다 그리고 인천(仁川)수원(水原)평택(平澤)강화(江華)에도 예방주사를 실시하게되엿다

康津虎列刺疑似患者 胃腸病으로判明

一般住民에安堵色

전라남도강진군(康津郡)군동면(郡東面)에서도 호렬자 의심잇는환자가 발생하엿다하야 세상사람에게 만흔공포를 주엇고 위생당국에서는 곳방역(防疫)의 배치를하고 엄중히 검병(檢病)하엿든데 삼십일아침에 그것은 다만의위장병(胃腸病)이엇슴이 확실히 판정되엿스므로 모다 저윽이안심하게 되엿다한다

西大門管內로潛入한 合百軍七十名또檢擧

鹽川橋아래서開場中을捕盡

[illegible]

愛婦國婦兩團體의 提携强力協調

大野總監의通牒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는 총후(銃後)의 후원을 위하야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잇는데 이두부인단체가 서로 그직무에 충실히 노력하야 [illegible] 서로경쟁하야 [illegible] 총독부에서는 이에대하야 대야(大野)정무총감의 명의로 각도지사와 각국과장(各局課長)과 제일차소속관서장(第一次所屬官署長)에 대하야 다음과가튼 통첩을 [illegible]

戰傷兵士에 聽取器寄贈

[illegible] 상병사를 위안하기위하야 경성부교육회에서는 이십구일에『라디오』청취기(聽取器)한개를 기증하엿다한다

職業女性S·O·S

魔手에걸린

謀計가아닌가하야警察에呼訴

불량배의 마수에 걸린 직업녀성의 S·O·S ─ 부내 내자정(內資町)이백이십오번지 배봉옥(裵鳳玉)의 맛딸 김경래(金庚來)는 [illegible] 수송(壽松)보통학교를 마치고 살길을차저 고생하는 몸을도와 그해칠월 종로 [illegible] 한청식당(韓靑食堂)의 녀급으로 다니든중 불량배의 꾀임을받어 지난정월 무단히 집을나가 소식이업다가 청진(淸津)에 [illegible] 리경의(李京義)라는 [illegible] 명의로 편지가와서 경우로모의 가슴을 아프게한바 지난이십일에는 회녕(會寧)에서남자의 [illegible] 잠부가되여 호적등본을 보내라는 기괴한편지가 날러드니 어머니는깜짝놀래 이것은 거짓말로 자기딸을 팔아먹으려는 유괴마(誘拐魔)의 손에걸린듯하여 하로밧비 내딸을 구하여달라고 이십구일 종로서에 보호원을 제출하엿다

少年轢傷코 逃走한"트럭"

이십팔일 오후아홉시쯤 부내 고시정(古市町) 림목려관(林木旅館)앞에서 강원도(江原道)출생리광희(李光熙)라는 소년이남대문(南大門)방면에서 룡산(龍山)으로 향하든 화물자동차에치어 오른쪽다리가 부러젓다 피해자는곳 세브란스병원에입원식혓는데 전치약이개월을요할 중상이라고하며 본정서에서는가해『트럭』을 찻는동시에 엄중취조중이다

富川郡下에 怪殺人事件

中年女를亂刺殺害

【仁川支局電話】지난이십팔일아츰여덟시쯤해서 부천군서곳면송촌리(富川郡西串面松村里)계양산(桂陽山)에 나히 마흔살쯤된녀자한명이 오른쪽뺨이 날카로운칼로 한쪽각 돌려내여잇고 목을 칠팔개소나 찔러서 죽어잇는 시체를부평공보(富平公普)에 통학하는 룡하면생도가 등교하다가 발견하고 공부평주재소에 보고를 하게되엿다 급보를받은 주재소원이 현장으로 급행하여 조사하엿스나 그녀자의 신원조차알수업고 어느곳의접객녀가튼차림이며 몸에는다만『마코』한갑과 성냥뿐이엇섯다 이십팔일부터는 인천서(仁川署)사법주임이 현장에나아가서 수사진을펴고 이날오후에는 경기도경찰부하가(下家)경부까지 출동하야 밤늦도록 대활동을 개시하고잇스나아직까지 이괴상한 참살사건의륜곽과 그범인의 소재는 오리무중에잠겨잇다

쌀도적

부내삼판통(三坂通) 일백륙십사번지 송본시조(松本市助)의집에서는 일전부터 매일 가리쌀을 도적맞고잇섯는데 고용인 김명근(金鵬根)이가 벼장속에드러가서 지키는중 여섯시쯤해서 과연 괴도출현 알고보니 부근에사는 산본부자(山本富子)라는 녀자가 양동이를들고와서 쌀을퍼가려고하므로 대성일갈 현장체포를하야 룡산서에보냇는데 이 말을드른 부자의남편이 김을난타하야중상을입힌 룡산서에서는 방금도적부부를착조중이라고한다

平北各地初氷

【新義州支局電話】평안북도산간지방에는 어제구일이래로 기온이 급작스럽게 나려서 령하 이도로보이고엇서 강계(江界)자성(慈城)、중강진(中江津)지방에는 곳곳마다 서리가 나리고어름이 어럿스며 그중 특히 중강진 서편내에는 강이 모두어러붓고 그리고 강계군과 룡천군(龍川郡)내에는 서리로 농작물중의 피해가 적지안흘모양이다

發狂한家長 家族三名殺傷

龍川郡下에慘劇

【新義州支局電話】평안북도 룡천(龍川)─以下不明─사는 김형근(金亨根)이는 이십팔일밤에 발광하야 작도로 자기집에서 그의안해와 네살먹은아들과 동생이어떻을 찍어서 안해와 딸을 즉사케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혓는데 범인은 [illegible] 경찰부에서체포하여 엄중취조중이다

虛僞强盜告發

【安東縣】지난이십칠일밤 현시 방경 안동현만주국경찰청에 권총가진강도가 현금을 빼섯다하고 뛰여온 사나히가잇서 경찰은 곳각처에비상선을 느리고 물샐틈업시 경계에당하엿는데 강탈을당하엿다는 현정자문패잇는 석탄상점고용인 [illegible] 리(李)모의 [illegible] 의자본을 흉롱하여 [illegible] 업을계속하다가 왕옥진(王玉珍)이라는 유곽의작부를 알게되자 매일저녁 드나들다 리모가 [illegible] 경우를알고 간이업는돈에 금고 속에든 일백구십원을 끄내가지고 언대 간은이에분개하야 전기와가티 허위고발로 경찰을 일시 소동케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豫報 오늘맑고 明日의 京城地方은 흐리고잇스며 全鮮도 갓다

昨日最高 二四度六 同最低 一八度 今朝最低 一五度一 今日正午 二二度二

스포-츠

明日부터 體育데이

運動場無料公開

第十四回 京城體育『데이』는 十月一、二、三의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illegible] 그리고 體育데이기간에는 京城運動場은 一般에게 無料로 公開하기로되엿다

▲十月一日(午前九時)府內初等學校聯合陸上競技

同(同)靑年團 野球決勝

同(同)女子庭球選手權大會

同(午後一時)靑年團蹴球大會

同(同) 府內初等學校野球決勝

警察官武道及小學校

▲二日(午前九時)男子中等庭球選手權大會

同(午後一時)女子中等 [illegible]

同(午後二時)京商對京師野球戰

▲三日(午前九時)女子中等 [illegible]

同(午後零時四十分)女子中等校마스께임

同(午前九時)官廳對銀行 [illegible]

同(同)男子中等庭球選手權大會

同(同)一般實業團排球

同(午後一時)一般實業團野球戰

同(午後二時) [illegible] 野球戰

全平壤蹴球出戰

【平壤】朝鮮神宮競技大會에 出戰할 全平壤의 陣容은다음과가티 決定되여 方今合宿하야 猛練習을하고잇는데 [illegible] 夜平壤을 出發하게 되엿다

◇全平壤軍 張炳五(主將) 安泳翰 金永燦 盧燉霖 韓泰鎬 李鍾德 金元模 洪鍾杓 吳義根 金永根 韓泳澤 金喜守 金東奎 金昌勳

하나님의子女

[illegible]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셧스니 [illegible] 예수를 [illegible] 하나님의 [illegible]

回蟲驅除藥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산독니념 珊篤尿涅菓子)

무서운 蛔虫을驅除합시다! 蛔虫은每日食用하는野菜김치等에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體內에生長해서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各種病의原因이됨니다 特히小兒는蛔虫에걸리기수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예전부터信用잇고잘듯는岩印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服用식혀서이무서운蛔虫을驅除하고애기네를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類似品잇스니 靑印에注意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平興、大和町、裡里

全朝鮮學校一覽

全鮮에잇는各種學校所在地와內容을明記하야잇습니다●新春新學期를압두고學校選擇에苦心하는受驗生諸君과父兄諸位는반드시보시라●

(最新版) 定價六十錢 振替京城二七九八〇番

京城府昭和町一 發行所 朝鮮敎育社

고무신은거북선

登錄商標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治麻球

男女淋疾의靈藥

定價 五十個入 一圓八十錢 百個入 三圓 三百個入 [illegible]

患者諸氏여評論보다效果에事實이證明되는有無는試用後可知하겟사오며 用法은詳細한說明書에 [illegible]

此外製劑四十餘種 [illegible]

京城南大門通五丁目 製造發賣元 救世藥館 電話[illegible] 振替京城[illegible]

小資本工業案內

三國商會에서는小資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을누구나能히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함 京城府長沙町一九 (原料商) 泰昌工業社

家庭用炭의最高峰

撫順炭本日부터價格引上

産地元價昂騰키때문에十月一日부터左記와如히價格改訂하오니倍舊愛護해주시옵기懇願하나이다

記(十月一日부터新價格)

地名	撫順塊炭(噸)	撫順中塊炭(噸)
京城	每噸金 二〇圓 六〇	每噸金 二二圓 二〇
大邱	同 二三、五〇	同 二一、七〇
群山	同 二一、七〇	同 二二、四〇
木浦	同 二二、七〇	同 二二、五〇
釜山	同 二一、一〇	同 二〇、七〇
元山	同 二一、七〇	同 二二、六〇

販賣店으로부터는 本公定價格으로써 販賣하나이다 多寡에不拘코

株式會社 三國商會

實用新案特許第二三九二七二號 靑葉式送風機

多年苦心研究한靑葉式送風機 [illegible]

京城府靑葉町一丁目一八〇 電話龍山(4)二三一七〇 振替京城二〇〇二三番

靑葉鐵工所

宮中秘藥 借力虎骨丸

果然註文殺到大好評

藥價 大借一劑百圓、中借一劑五十圓、小借一劑三十圓

世界市場을相對로中國秘藥飛躍的進出!

借力虎骨丸 一劑服用으로 天下無敵!

秦始皇도秘藏愛用든强筋借力劑 滿洲國特許局第一五九三號

現在가운보다 [illegible] 天下에 [illegible] 借力虎骨丸 [illegible]

謹告 北支의風雲急告하오나아시는바와가티滿洲國內의治安은日本內地와同一하야秩序도不安이無하오니安心하시고注文을하시오

滿洲國新京特別市興安大路卿雲街角 無限公司 亞細亞大藥房 電振二一一四四一·振替新京九九番

名勝地와 有名商品 推奬 懸賞募集

懸賞規定

一、此實에揭載된 各種廣告의名勝地名、商品名、商店名、等을 無漏히記入할것。
一、應募用紙는官製葉書에限하고 應募枚數의制限은無함 (應募者의住所氏名詳記)
一、締切은十月二十日限 (當日郵便消印잇스면有效)
一、等級은 嚴正抽籤하야 一、二、三、四、五等을定함
一、當籤發表는十月下旬本紙上
一、答案送處 京城太平通二丁目 朝鮮日報社 廣告部懸賞係

賞品

一等 (一人) 自轉車、콜럼비아 포라블蓄音器、中志望品一件
二等 (二人) 腕時計京城放送局指定受信機、세ー라스케ー트及同靴付、高級핸드빽、中志望品一件式
三等 (十人) 化粧品셋트、파이로트萬年筆、卓上時計、電氣다리미、白銅神仙爐、鐵製盒一雙、中志望品一件式
四等 (五十人) 石鹼半打、一人前半打式
五等 (二百人) 榮光一冊式
▲賞品은十一月十日까지發送함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크림

秋空에빗나는新鮮味와魅力

潤澤잇고生氣잇는明粧은 레ー도크림으로

가을이되면 空氣가乾燥하여 皮膚와表面의水分이마르기때문에 살결이거처러워지며 皮膚面에 가는주름살이잡혀지고 白粉을잘밧지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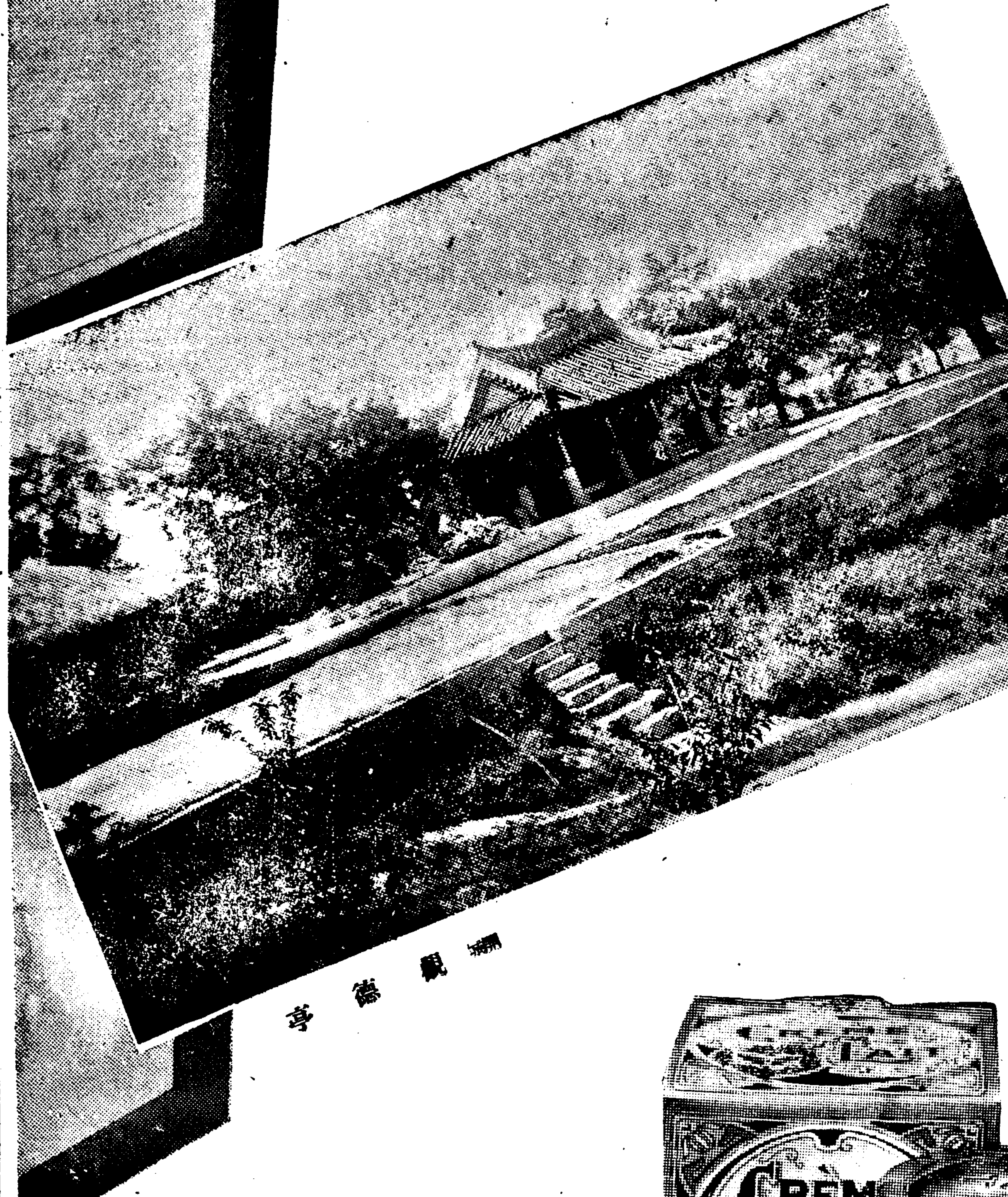
그런고로가을에는 皮膚面의乾燥함에恒常注意하며 皮膚下에 充分한榮養을補給시켜야합니다

……**方法?**…………그것은 靑春美의救世主…레ー도크림이잇슬뿐이올시다

……레ー도크림은 優秀한 科學的有効成分으로 살결을 潤澤잇게하고皮膚의榮養을充分히給與함으로 거처러워짐을防止하고살결에新鮮味가넘처흐르게됩니다

…化粧하기前에바르면粉을잘밧고…
…就寢前에바르면살결이부드러워지고…
…家事에밧불때손쉽게化粧할때…

반드시 래ー도크림한瓶을 家庭에常備하여두시요



觀德亭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巴里의가을모-드심프손타입

미국녀학생들의인긔독점

예전의 심프손부인 지금까지도 『심프손부인』이라고할 하는것은조금어색하나 그래도 아주다리나 미국등지의 특히게에서는 심프손부인타입이란것을 이야기하게되니 그러케 면의상을통하기로 하겟습니다 그심프손부인이 지난봄에 프랑스에서 원저공과 결혼식을 하얏슬때 그가식

장에서 입고잇던 외러안절의 의상이 금번가을의 파리류행계를 휩쓸고잇스며 미국에서도 가을의모-드로아조 다단한 류행입니다

원저공과 심프손부인의세기의 러에를거처 꾸다로결혼식을 올렷을때 그당시의 탓인의 사치에 외하야 여러분도 잘아시지만 심프손부인의 옷의 특징은 것이비잡고조브며 또한 웨스트등 라인도 눕게달려잇습니다

이밧게도 여러가지정로로 이세계적려에의 숭리기 심손부인타입이라것이 파리의 류행을 휩쓸뿐만아니라 미국 녀자생들의 인기를 독점해 버렷습니다

미국의 일류의상점은 서로경쟁해가면서 가을의 견본전람회(見本展覽會)에 어 특징을 살린 데시인을 전렬하고 전미국에 큰센세이슌을 이르키고 잇습니다 다치카고의 어떤의상점에서는열린 견본전람회에서 금년가을에 제일인기를 끈의상은 그래노―의 하이넥크 하어·웨스트라인 보디이스가 불룩한 심프손타입에 노-포크빽의 코트를 입혓습니다 사진은모다 금번가을류행의 심프손형입니다

家庭

더위에상한몸이 치워지면 가슴을알는다

혼자대중으로알수잇는증세

절대정양! 그냥두면큰일나

여름동안의 과로와 쇠긔져한 운동으로 말미아마 쇠약해진몸에 첫가을의 위장장해(胃腸障害)로부터 여러가지의 의변을 가저왓스므로 지금중에는 가슴아리증세가 나타날것입니다

가슴아리병가운데도 여러가지 종류가잇는데 누구나 처음에는 륵막렴(肋膜炎)인가하고 의심하도록됩니다 그만큼 륵막렴은 가슴아픔와 흡사하고 또 엇개낫지안흔병으로 지목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륵막렴이라해서반드시 가슴이 아프라는 법은 업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안흔 륵막렴도 엇지안허 잇습니다

륵막렴은 폐결핵(肺結核)이라든지 기관지림파선종창(氣管支淋巴腺腫脹)이라든지 편도선렴(扁桃腺炎)이 잇서서 이차적으로 계속하야발생하는때와 과로와 타박상(打撲傷)과 감한으로 말미아마 발병하는수가 잇스므로 전후의 사정을 잘참작하야 보지안흐면 안됩니다

가슴이아프고 갑작히 열이 날때는 폐렴(肺炎)의 의심을 하게됩니다 급성륵막렴이 흡사 이와 갓습니다

또한 폐렴과 륵막렴이일시에 발생하는수도 잇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는것은 륵막그자체가 렴증(炎症)을 이르켜서 자극되는까닭입니다 륵막이 러하는것은 대단히 엷은 막양(膜樣)의 조직으로서 한편은 폐장(肺臟)을 둘러싸고 다른편은 흉강(胸腔)의 내면을덥고잇는것입니다

이러한 전체를통하야 어떠서나 일부분에 고장이생기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만성의때엔 흔히 아프지안흘수가 엇습니다

폐결핵에 되면서 그진행중에 가슴이 아퍼지는수가잇습니다 그때는 흔히 륵막렴을 경해서 발생하야잇습니다

또는 폐와 륵막의병이진행하면 한편가슴이 아퍼지는수가 잇습니다 만약 그 아프든부분을 엇세게 눌리면 더아프고 또한 그부분이뼈잇는데레서 다소라도 노프게 소친것이면 륵막"카리에스"의 염려가 만습니다

륵막카리에스는 대개 다른원인이 잇서서 이러나지는 안흐나 때에 따라서는 별이 넘머와서 가슴을 맛처다든지 어느모서리에 부다친것이 원인이됩니다

어 카리에스는 속히 발견하야 치료하지안흐면 대단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가슴아리 가운데 제일만흔것은 전에말한 폐렴 륵막렴등이잇스나 이밧게 식도암(食道癌)이라든지 흉강내(胸腔內)의 종양(腫瘍)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흉부근육(胸部筋肉)"로이마치스"라든지 륵간신경통(肋間神經痛)가튼것이 잇습니다

이것은 보통사람의 짐작으로는 알수업는것입니다 의사가 세밀히 진찰을하드라도 한두번해서는 잘알수 업는것입니다

아프다는것은 주관적(主觀的)인것이니 객관적(客觀的)으로 잘알수업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며 어떠케아프고 엇떠한 특증을 가지고 아프며 추장어느부분어 아프다는것을 자세히 말할수업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말하는여러가지를 명백히 해두지안흐면 안됩니다

가슴아리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또는 위냐 아래냐 하는것과 전후의 아픈위처를 아라둘것입니다

륵골(肋骨)에 접근해서아프다든지 가슴뼈의 뒤라든지 정중선(正中線)이 아프다든지 가슴뼈(胸骨)라든지 거든드믜치 아프다는것을 아러두어야합니다

다음에 어떠케 아프다는것 아픔기(痛感)입니다 우울때 아프다든지 심호흡(深呼吸)을 하면 아프다든지 이야기할때 아프다든지 기침할때 아프다든지 이러나면 아프다든지 조용히 안저잇스면 아프다든지 그리고 체온이 노파지면 아프고 나지면 아프지안흐며 여프로 누어잇스면 아프다든지 안아프다든지 하는것을 아라보십시요

아픔의 성질도 아라두어야합니다 가슴전부분이 며끈하게 아프다든지 늘리지는것처럼 아프다든지 바늘로 쑤시는듯시 쥐여뜻는것처럼 아프다든지 담결하고어두면서 아프다 는둥입니다

아프기시작할때는 무엇보다도 조용히 휴양하여야합니다 엄음을 전에하고반드시 누어잇서야합니다

누어잇서도 낫지안커든 의사에게 치료를 바더야합니다

집에서 령시로 쓸약은 고약을부치는것입니다 피부가 헐지안코 진통(鎭痛)시키는약을 바르되 열에따라서 아픈것이 더하고 덜한것입니다

혼인날바더노코 얼골단장하는법

이대로하면영락업시엡버저

지금으로 부터 십일쯤까지는 결혼식이대단히 만흔때입니다 일생일대의 결혼이라 될수만잇스면 무엇이든지 훌륭하게 해야될겝니다

예날가트면 혼인날을 정해노코 붓그럼운나머지 골방에 숨어잇는것이 아가씨의 풍리엿습니다 그리하야 얼골단장도 혼인날에야비로소 병풍뒤에 숨어서 영양아자씨들이뻡시로 미용사가되어서 분바르고 어미밀고 연지찍고 큰머리을리는것이 풍속이엿습니다 마는 지금은 신식풍속가드려와 나란처녀들이면 재작선이 선량감을 정하는 세상이라 결혼식때 엡부게보일 화장등은 말하지 안어도 제각각연구해 노홀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결혼화장은 기품을 도우고 화려한것을 나타내며 어듸까지라도 선선한 기분이들도록 하는것을 엇지 마십시요

이것은 요사히 미용사들이 누구나 제일조건으로 생각하고잇는 화장개념(概念)입니다

그러나 결혼식화장은 일류미용사를 청하야 맛긴다하더라도 평소의 화장이 잘못되어서 여드럼이난다든지 살이껏칠러저잇스면 미용사라하더라도 그렇잘에 고처놀재간은 업습니다

비록 평시엔등으로 겨우꾸며다하든라도 한시간이못가서 코등과 이마는처서 문허지기 시작하야 그만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날을 정해노코 한달이내에 또는 그보다도 훨씬 전기에서 다음과가튼 유원처치를 하야 얼굴에 화장의 고초를 닥거노튼록하십시요 여러분가운데 혼인날을 정해노흔 아가씨는 안계십니까 남에게 가루처주지말고 이기사를 가위로 올래여서 당신방에도라가 혼자읽어보는것도 조습니다

×

얼굴을 씻치는것은 모든미용의 기초입니다 그럼으로그저 온지를 씻처버리면 그만이라는 쉬운생각을가지지 마십시요 세수하는것은 때를 씻는동시에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도와서 영양(榮養)을 가저오는의미로 비누보다도 세분(洗粉)이 조습니다

머욕과 아침세수에는 모래와 풀어 섯기지안흔겨(糠)을 정미소에서 사다가 명주나 모스린의 주머니속에너허서 세수할때 닥거주고 찌고 어러케 여러번 뒤밧구어가면서 얼골을 씻친다음 수건으로엽풀데리고는 화장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가면서 바르는데 나중에 냉수에주긴 타올로 엽풀을떠서 느러진살을오므려드도록하십시요

그우에다가 중성(中性)이나 약산성의 콜드크림을 조금발러서 가벼운맛사-지를하고 떼오르는크림은 솜으로써서버리시지요

얼골빗지 경우분 계(鷄)에 호설탕을 석거서쓰는것도 조흐며 또한 얼골을 씻친뒤에 게란흰자위한개를 거품일게하야 손바닥으로 얼골에한볼펴하고 손바닥으로 두다린다음 그우에 콜드크림을 조금발러서 잘가붐만 그냥두니다 그리하야 한이십분 지난뒤에 닥지면으로 닥그면조습니다

여드럼이 만흔분이면 이것을 작고찌거나 만지지 말고 하로라도 속히 전문가에게보여서 곳치도록하십시요

화장법은 수연하면 그만입니다 달리결혼식화장이라고정해논것은업스나 될수잇는대로 네리(練)백분 물백분가튼것을 늘써보십시요 더욱 평소에 기름분만쓰든분이면 더욱 물분이나 네리를 써볼필요가잇습니다

머리는 결혼식전에 늘찔하게하며 너무지나치게 찌즈지마는것이 조습니다

그리고 퍼-마넨트는 한달전에는 절대로 금해버리지안흐면 안됩니다

마즈막으로 여저서는안될것―손과손톱도 전기하야 정결하게 깍고모양을 정돈시켜두십시요

한번읽어서 잘모르시거던여러번 종용히보세고 어더어저버리지안토록 경지해두고 여뱅법대로 여러날계속해여합니다

전쟁때문에생긴 남자의올빽

구주대전때 전장에서 갓 도라온 간호부들이 어떠케 전장에서 어(?)개 만흔지 그만 짐에를 하다가 거기서 다핀 머리를 짜지고 평분이 나서 그뒤 다떰이 류행햇습니다

그러데 구주대전은 여자의 머리에 변화가 오고만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에도 큰변화를 가저왓습니다

그것은 전세계를 휩쓸은든 남자의"올빽"의 류행입니다

참전이 오래끄니 남자들은 모다 전지에 나가고 국내에 남어잇는 남자들은 모양내기를귀찬어서 기름바르고 빗기기를 귀찬하야 리발도 잘하지못하고 그냥 머리가 자라는대로 맛겨두어서 나종에는 머리가 기러서 상투를 쫏지게 되엿습니다

그리하야 하는수업시 머리를 뒤으로 넘겨 울려부치고 일을하게되엿습니다 그모양이 즉"올빽"의 거집니다

구주대전이 지난뒤 질골어신업에 세상이 흘러가고 학거벗친 사람이 남어잇서 이야기 속에 작거버린 머리는 잇서 다시 엿이야기 속에 그래서 하실해보어는"비스네스커트"라일이 모런으로 "퍼-마넨트"도 류행되고 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만약 금번의 사변이 오래 계속된다면 또한 머리에 어떠한 유행이 자져올지 머리를 위해 더말할것이 업습니다

미용도잘만하고보면 동상을세운다는이야기

퍼-마넨트·웨-브만든사람을 영국과불란서에서큰대접

천한집에서 나서 귀하게된사람을 친다면 동서고금에 엇지 한두사람만되겟슴니까만은 지금 세계의 미인들이 다두어가면서 자랑하는 퍼-마넨트·웨-브도 그것을 처음으로 만든사람은일 처음엔 칠칠오년에 불란서의 어느시골석수정이아들로

태여난 마셀·그라트란는 사람이엿슴니다 그러나 본래나든때로부터 몸이 엇더케나 약하엿든지 석수일과갓튼 힘드는일은 할수가업시되엿습니다 그래서 그아버지는 아들에게집일을 미루어줄수도업고하니까 허는수업시 그근처에잇는 어느조그마한 리발소에 직공으로 주엇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잘하지안코 작난이심해서 주인의 눈밧게 나기는 물론이고 부모의 걱정도 여간시키지안헛니마는 얼마를잘되는해부터 무슨생각을 햇든지 혼자서 기차삭을 작만해가지고 서울『파리』로갓습니다 거기서 어느 미용원에 심부름꾼으로 드러가 잇해동안이나 친석을 어저버리고 열심으로 일을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엿답니다

그다음에는 결혼을하고 혼자 개업을하게되면서 서울로부터 그어머니까지 모서오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실상인즉 그때은 어머니를 자지집으로 모서왓다는것이 마셀로하여금 세계적인 물이되게한 중요한 원인이라고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마셀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주 어람다운머리칼을 가지고잇섯스나 살적이 매우 고수머리엿습니다 이것을 조석으로보는 마셀은 직업관계도잇고해서 엇더케해서 그어머니의 고수머리를 아름답게 보이도록할수잇슬까하는것을 연구하엿습니다 그러나 종내로 해오는 웨-브라는것을 잘해노아도 그때뿐이여서 물에씻스면곱러지기가 일수이고 또 하룻밤만자고나면 그만 풀니는것이엿습니다

그래서 하로는 마셀은 그어머니의 고수머리에 『고테』(머리지지는인두)를 언제피는 아주

반대로 대여서 지저보앗습니다 이것이 그사람의『퍼-마넨트·웨-브』법을 처음으로 만들고 왕성하게한 첫거름이엿습니다

그때만해도 웨-브라는것을세상에서 그다지 대단히 알지도 안코 따라서 웨-브하는 갑시타는것이 멀을수엇시 싸는데엇더한 기회에 당시 불란서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초코레』왕『메니에』의 부인이 이 마셀의 어머니가한 웨-브를보고 대단히 칭찬해서 저기도 그모영으로 웨-브를 하면서 한번 웨-브하는 요금을 륙십원식어나 베엿다고합니다 지금생각하니 륙십원어 얼마되지안는것어저 그때만해도 지금으로부터 칠십년전에일어니까 어모리불란서라고 하드래도 웨-브한번에 륙십원돈이라는것은 결코적은것이 아니엿습니다

초코레트왕 메니에의부인이웨-브한번하는데 륙십원을 주엇다―하는 소문이한번『파리』서중에

퍼지자 마셀·그라트의일홈은 엄시에 확퍼저서 동업을하는사람들은 엇더케해야 마셀의 웨-브하는비법을 배홀가하고 여러가지 고심을하는중 엇던사람은 가만이손님가려 채려가지고와서 마-셀에게 웨-브를하면서 그법을 배우려고한사람까지 잇섯다고합니다

후년에와서 그는 동업하는사람에게웨-브하는법을 가르처주게되엿는데 그비법과함께 마셀의 일홈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되엿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말할것도업고 영국에까지 마셀 그라트라고하면 누구나 모르는사람이업섯다고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남다른점은 무엇이냐하면 그웨-브하는법을 독허로엇기는 아주 용이하게 어덧스나 결코 그독허를 등록내려고하지는 안햇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셀이 그것을 가지고 독허로를 내여서 퍼마넨트·웨-브독허료를 정식으로 바덧다면 적어도 십억원을 버렷스리라고합니다

현재 영국만해도 일만명이나 되는 미용여자가

마셀의 웨-브하는법을가지고 어천삼백만명이나 되는녀자의 필랍가가이를 손님으로하고잇다고합니다

그러나 마셀은 생각하기를퍼-마넨트·웨-브는 녀자만할것이아니라 젊은남자에게도 해서 모다 십칠세기나 십팔세기인긴 머리와가티 보기조케하려햇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고 모다 남자들이 머리를 짧으게 깍는것을 매우 실망하엿답니다

그래서 그퍼-마넨트·웨-브법이 세계 어느나라할것업시 유행하게된 일천구백이십년에 마셀은 만례에 정양하려고 정해둔 별장에서 팔십사세의 고령으로 작별여롤에 영면하엿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영국서 미용업하는사람들이 모혀서 파-마넨트·웨-브하는법에 대해서 특허료를 밧지아니한 마셀의공덕을 기념하기위해서 그의 고향인 불란서에『마셀·아징코르』라는 부락을 만들고 불란서의 미용업자들은 마셀·그라드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기로 하엿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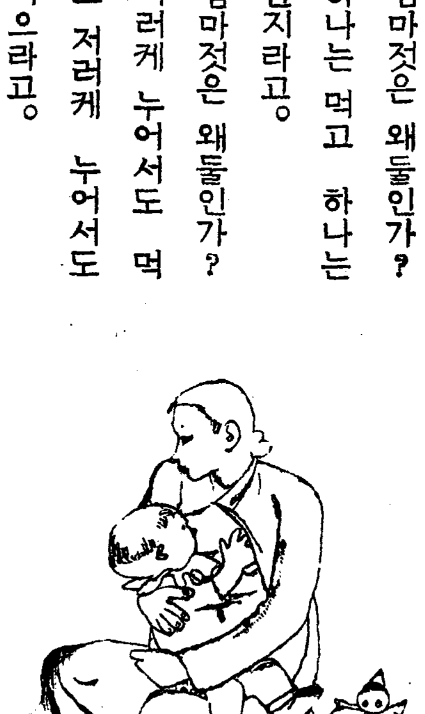
우리차지

엄마 젓

엄마젓은 왜둘인가?
하나는 먹고 하나는
만지라고。

엄마젓은 왜둘인가?
이러케 누어서도 먹
고 저러케 누어서도
먹으라고。

(공주사람 윤노마)



本社學藝部後援 中國料理講習會

十月六日부터엿세동안 녀자기독교청년회주최

시내 서대문정 일정목에잇는 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에서는 래 십월륙일부터 엿세동안 매일 본사학예부후원으로 중국요리강습회를 열게되엿습니다

날자는 오는시월초엿새날부터 엿세동안 매일오후두시부터 시작하야 오후네시까지로하되 회비는 한사람에 매일 원오십전이며 강사는 리화전문강사로 게시는 정순원씨로서 중국요리에 대하야는 열심이잇는분입니다 그리고 강습장소는 서대문정일정목에잇는 녀자기독교청년회관이오 신청은 그전날까지 하면됩니다

Copyright, 1936, by NEA Service

디온느오남매 에탈낫다

에미리-가급성 폐렴에걸여서

디온느의 오남매는 잘자라서 지난오월이십팔일에 어느듯 만삼년의 생일을 마지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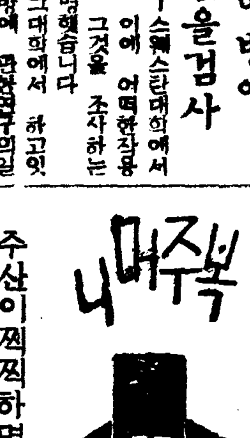
그러나 요사히 그가운데 한아히 에미리-가 급성폐렴을 이르켜서 붕유게의데포-바사는 그만호전을 먹고 즉시 소아과의 권위자 아랑·부란아바사를 트론트시에서 비행기로 불러다가진찰한결과 전염성이잇는 폐렴이므로 남어지 네아히에게 전염해서는 낭패라하야 따로 떠러저잇게 하엿습니다

양처의 디온느부처도 병실의 엽방에 자리잡고 엿스면서 근심을 하고 엇습뿐아니라 이소식이 한번카나다의 전국에 퍼지자 카나다는 물론 미국과영국에서도 위문전보가 모여드러서 산데미처럼 싸이고 잇습니다 "카란다-"시에서는 유명해준 아히의 하나에게 면의의 일이 엇술까하야 시민들이모혀서 병원밧가튼 인산인해를 어루고잇다고합니다

충치예방에 잔침을검사

미국 노-스웨스탄대학에서는 잔침이 이에 어떠한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기계를 발명햇습니다

이것은 그대학에서 하고잇는 충치예방에 관한연구의일부분으로서 그러치는 잔침과 이를 무든가루속에든『호-노느질(琺瑯質)』과를 호합시켜서 온도를 채오과가는 도수로주분동안 흔드러두도『호-노』의 용해를 검사하야 용해(溶解)가 어느정도이상의때는 그사람의 잔침은 충치를 가저올것으로하고 그사람의 업속을검사하야 잔침의 어것을에서질을 변화시켜서 어것을예방하는것입니다



가게가명한다 수산이찌찌하면

가게보시는분의 주산알이면 하게 오르나리지어코 띡띡해서야 어딘 장사가 잘될수잇습니까 더욱 손님보기에도창피하지안습니까 그러나 사신지오래될뿐아니라 갑시헐하면 자연 주산대가 습기를 먹고 둔해지게됩니다

또한 곰팡이가 끼이고 오래쓰지안흘때문에 매끌(黴)이 잘되지못한 까닭도 잇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연하게하라면 석밀(石蠟)을 부서서가루로 만들고 그가루를 헌겁에 싸서주산알과 대에 문질르두면 조습니다

천정쓸겨

방을 께끄시 치우고라도흔히 천정을 하는것은 어저버리기 쉽습니다

천정을 더는때는 흔히 총채로 털게되나 실상은 총채로털면 몬지가 웬방안에 흐터저서 도로혀 방이 더러워집니다

보다도 모켓고른 비자루에 『네루』헌것을 더러매여 가지고 천정을쓸면 몬지는 모다『네루』에 무처집니다

中編小說豫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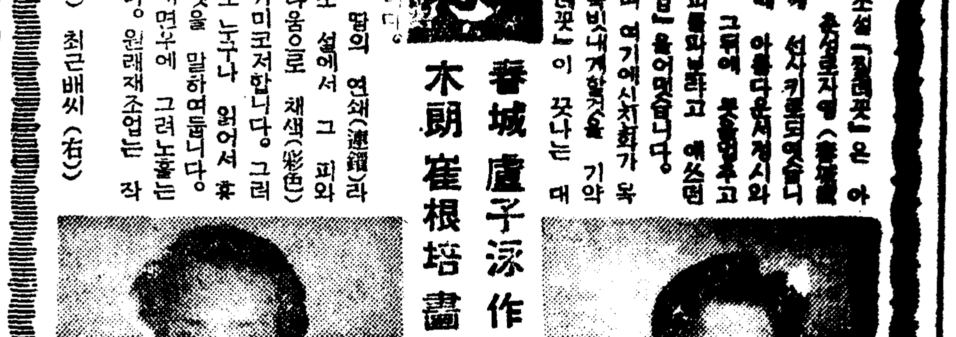
人生特急

春城 盧子泳 作
木朗 崔根培 畵

독자여러분께 김말봉씨의 장편소설『찔레꽃』은 아프로 몃회지안어 끗나게되는데 그다음으로는 춘성로자영(春城盧子泳)씨의 중편소설『인생특급』을 여러분께 선사키로되엿습니다 조선에 신문학이 드러오고 얼마되지안어서부터 아름다운서정시와 산문으로 그당시독자를 열광시키든 춘성이 그뒤에 붓을멈추고 오래동안 사색(思索)을 차즈며 인생의 기피를파보라고 애쓰면 나머지에 지금여러분의 압헤 나타날『인생특급』을 어더냇습니다 작품의일단은 작자의말에서 짐작하실것이며 여기에서 삽화가 목랑최근배(木朗崔根培)씨의 장화는 작품을더욱빗내게할것을 기약하야 마지안습니다 이소설은 구월하순『찔레꽃』이 끗나는 대로 곳여러분의독자미테 떠처지기시작할것입니다

作者의말

인생의 행로(行路)는 피와 땀의 연쇄(連鎖)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소설에서 그 피와 땀을 다시 꼿과 힘과 아름다움으로 채색(彩色)하고 거기에 어떤 영웅(英雄)적 행진을 가미코저합니다 그러나 이소설은 순수(純粹)한 예술적향취보다도 누구나 읽어서 興미를 늣기도록 통속적(通俗的)으로 쓴다는것을 말하여둡니다 그러나 작자의 이 생각을 어느정도까지 지면우에 그려노흘는지 어것은 작자로서 가장 우려하는바입니다 원래재조업는 작자이나 힘껏은 노력을하겟습니다



(사진―작자로자영씨(左) 최근배씨(右))

長篇小說 찔레꽃 【128】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찔레꽃 十六

밤은 몃시나 되엿는지 벽장문이 실낫갓치 열린사이로 광기는 충분히 드러오지만 웃란은 거의한시간이나 되여가는대도 조두취의 도라오는 기척이 업는것이 약간 불안하여젓다

『어데서 외방을 할작정인가?』

웃란은 차디찬벽에다 엇개를 착붓친채 벽장문을 소리나지안케 약간열고 다시한번 문잇는쪽과 입부자리한편 벼개가노힌곳을 유심히 살피고는 살몃이 문을 다드려할때 땡땡……시계치는소리가 울린다 인제 열두시다 그러면 자기가 벽장속으로 드러온것은 불과 십분남짓하지안느냐? 웃란은 초조하여 허물찻다 바로그때이다 웃란은 전신의 근육이 일시에 긴장하엿스니 분명코 방문박게 사람의 발소리가 나고 그리고 드드릉! 하고 문이열리는 소리가 들린까닭이다 조두취가 도라온것이다 생각하고 손에들엇든 단도를 다시한번 힘잇게쥐엇다 그러나 방문이 열리는소리만 낫슬뿐 이윽고 문은 다시 닷처지고 복도에서 들리는목소리는

『애 영감마님 아즉 안도라오서늬?』

하는 확실히 젊은남자의 짜증석긴 음성이다

『누굼가?』

웃란은 어둠속에서 귀를 기우렷다

복도에서 들린 음성의 주인은 이집맛아들 경구엿스니 그는 이아츰으로 떠난다고 가방까지 경성역으로 내보내엇건만 엇저녁에 아버지가 약속한 그 십만원의 소절수가 아즉도 손에 드러오지 아니하여 그는부친의 도라오기를 종일토록 기다리고 잇는것이다 오정이될때까지는 그래도 부친이 친히갓다주시려니하고 자기방에서 기다렷스나 오후 한시 두시 어언간 겨울의햇빗은 또다시 이집을차저오게되자 경구는 초조를넘어 확실히 불쾌하여젓다

지금이열두시! 아직도 부친이 도라오지안는것을 인식한경구는

『망할놈의집안!』

하고 엽숙으로뿌르짓고 편념한듯이 자기방으로 드러가버렷다

경애도 저녁때나간채 여지껏 소식이업고……경구는 자기혼자만이 길가에버려진 고아처럼 쓸쓸하여젓다

『다-숨거웅이엇는데 다-행복이잇는데』

경구는 날만새면 빈주먹으로라도 메허와가티 황량한이집을 나가버리려고 결심한채 그는가만히 전등을꺼버렷다 그러나 자리속에 드러갈생각도업시 우두머니 창으로흘러드러오는 달빗만직히고 안저잇섯다

멩-하고 한시치울리는 소리와함께 현관아페 뽕-하고 자동차의경적이 울렷다 아버지가 도라오시는모양이다

두취는 최근호의 결혼축하검 송금까지 씩은고기를 먹은때처럼 속이불편하엿다

『배라먹을계집애년갓흐니라고』

중얼거리며 현관으로들어서는 두취는 상당히 취한모양이다 그도그럴것이 ××편에서 웃란이가 최근호를부잡고 주정하는통을볼때 그는 자기의체면만 생각지안엇더라면 당장에 웃란을 두발로짓밟고 그조고마한 비나쪽을 단번에 휘드득 쥐어뜨더버렷슬른지도 몰릅다

그는 그만큼 분하엿다 또한 붓그러웟든것이다 ××은행원 지배인과 또과장들과 또면면사원들 아니그밧게 여러손님들중에서도 웃란이란기생이 조두취의 애인이라는것을 대개는 다알고 잇섯스니!

아무렇지도 안은듯이 벙그레웃는 조두취의 볼은이마우에 손구락가튼힘줄이 내솟은것을보지 배인은 곳 두취의 자동차운전수에게 누꼿을하여 ××관으로 향하게하엿다 그곳에서 재이차로 버리진 잔채! 술과 미인과 노래와웃음은 두취의기분을 훨신명랑하게 맨들어주엇다 그래서두취는 속으로 매사에민첩한 자기은행지배인의월급을 올려야될것을 생각하면서 집으로도라온것이다

상노아이에게 외투와모자를바서주고 그는『쌀!』거-니하면서 자기침실로 드러섯다 상노아이는

『조금전에 안손님이와서 기두리십니다』

하는 보고가 본능적으로 입을까지 나왓스나 그는 그여자손님에게서바든 지전두장을 생각하고 홋빗 입을다무러버렷다

두취는 휘휘 옷을벗고 그리고 부드러운 자리옷으로 밧구어입고 새깃으로냅는 푸석한이부자리속으로 드러갓다

벽장속에 웃란은 숨을죽이고 단도자루를 단단히 감아쥐엇다

두취는 자리에누은채 부스럭부스럭 런방 조히소리를내며 무슨책인지 신문인지 읽는모양이다 이윽고 조두취는 한숨을내밀어 머리맛해 노인 전등의스위치를 틀어버리자 방안은 완전히 캄캄하여젓다

『응― 고년이 아주 맹랑하단말야 아 십만원을 그냥 담박 주어버렷더라면 큰일날번햇지 흥』

하고 두취는 감개무량한듯이후자말하는것이다 벽장속에잇는 웃란은 하-얀이빨을 드러내노코 업마야거리 우섯다

『네생명도 이밤으로 마지막이다』

웃란은 한손으로 옷고름을 채머리속으로 미러너코는 두취의 잠들기를 기다렷다

불어꺼젓지 한십분이나되엿슬가 두취의 코구는소리나기만 고대하고잇는 웃란의귀에 이상한소리가 들려왓다 바시시! 문을여는소리가들리자

『자 드러와요 하하하 자어여』

두취의 나즈막하게 부르짓는소리에따라 자박자박 사람이 갓가히오는 기척이난다 그리고 부시럭 하는옷벗는소리!

『가정교사로군!』

벽장속에잇는 웃란의 눈에서 파-란 불이 흘러 나왓다

창에기대안젓든 경구는 두손으로 머리를 싼채 창문을 회열어 재치고 침을 퀵배앗탓다。

『액――더러운 계집!』

경구는 일분전 자기의 시야(視野)를 싯처간 한개의 사실을 머리속에 내쫓으려는듯이 고는 벌떡 이러나서 전등을 켜다 그리고 그는 모든잡념을 물리치고 잠자는리성(理性)을 깨우치려는듯이 정말(丁抹)농촌이라는 영역팜프렛을차저 손에들엇다 그러나 글자우에는 분명코 조금전에 달빗이가득찬 복도우으로 고양이처럼 가볍게달려자든 한개의그림자가 명멸되고잇서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흔들엇다

하! 양장의몸입고 짤막한머리를 엇개우에드리운녀자 그는분명코 정순이엇다。

『벌서부터 아버지침실에 드나들고 엇섯든것을……』

경구는 어려서서 또다시 침을뱃고 퍽!하고 침을배텃다

그러나 그담순간 경구는 주춤하니서버렷다 어데서

『사람、사람살류―』

하는 비명이 어렴풋이 들려온까닭이다 경구는 고개를기우렷다 쾅쾅 문을두들기는 소리와함께 요란하게울리는 경종! 강도가들거나 불이날때만 쓰게되여잇는 경종소리가 밤공기를 뚤코 요란히들려왓다 경구는 번의바람으로 층층대를 뛰여나려왓다

『사람 살람 사람살리우』

하는 녀자의부르짓는 소리에 뒤밋처

『아무도업니 에-아무도업니』

하는 두취의웨치는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나는방향은 분명코 부친의침실인듯하다

경구는 어슴프레한 층층대를 커-텐으로가리워 달빗도업다 (단지 두취의방은 겨울이라도 병방에는 불도업고 게다가 두꺼운 벽을헐고 북드를다웟다 아버지의 장은업스니 그것은 위생상 납브다는것을알고 일부러 두취가 메지한까닭이다)

경구는 방문을열엇다 순간 피비린내가 훅 경구의코를 식처갓다 경구는 부친침실의 는손을더듬어 전등스위치를틀엇다

鍊金術

大家없는 文壇

柏木兒

俗談에 江原道捕手는 山으로 드러가는 것은 보혀도 나오는 것은 보히지 안는다는 말이잇다. 山川이 險阻하고 猛獸가 만흔때문에 산양을 갓다가는 捕手이잇서도 라오는사람의 數爻보담도 도리혀 그편을 밧고 못도라오는 數爻가 만타는말이다.

文學을하는 사람이 반드시 捕手노릇과一律이아니고 우리文壇이 江原道山川가티險阻하지아니한것은 두말할것도업스나 우리 文壇의現狀을 도라볼때 因緣업는 이俗談이 適眞하게 的中되는바가잇다는것은 한가지 悲劇的 笑話이다.

文壇이 文壇이라는 일홈을 드러오지 十有餘年이다. 그동안에 文壇人으로 死生苦役하니를 떠지면 적어도 百으로 헤일수가 잇다.

그러면 엇더한社會든지 그自體의 發展은 반드시 한개의制度와 秩序를 同伴하는바와가티 文壇이라는것도 벌서 이만한 年齡과 이만한 食口를 거느리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制度가 잇서야할것이다. 말하자면 大家이니 中堅이니 新人이니 심지어는 文靑이니하는따위等等.

그러나 事實에잇서서 우리文壇에도 이러한 制度的 秩序가 全然업는바도아니다. 가령 多少의 異見은 잇슬께모르드래도 우리文壇에서 大家이라고하면 누구나 李光洙 廉想涉 둘을 손곱을 것이고 中堅이라면그 다음 世代에 나타나 現役으로잇스니 新進이라면 또그다음으로 도라나서 一二三年쯤되는 作家를 칠수잇슬 것이다.

그러나 中堅으로치는 現役作家들과 新進이라고하는 젊은作家들 중에서도 萬若 重分類해서 個人個人으로떠진다면 서로 序齡한 地位를 박구어야 할사람들도 잇슬런지 모르지만 그보담 大家의 列로가면 누구나 侵犯하지 안는 榮光의 座席이 그냥 無主空堂이되고 마럿다. 近來까지 新聞小說로나마 文壇的 接觸이잇든 春園한분을 빼노코는다른분들은 언제는 安否조차도 모를지경이다. 그러니말하자면 우리文壇의 大家들은 江原道捕手가래서 大家의 列로드러가는것은 보앗서도 그리의 消息은 杳然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新派도아니고 劉備도아니라. 萬若이것이 [illegible] 上記한분들에게 冒瀆이된다면 본래 우리文壇에는 大家가업는셈이니 지실로 말하고 십픈것은 大家가업다는 一事바로 어것이다. 잇서도 업는것과가튼것은 업서서 업는것만도못하니까 지금 우리文壇에 大家가업다는것은 中堅이나 新進의推進的拍力에 업다는것과 맛찬 가지것이다 權威가업는데서 무엇을 넘어서라고 精進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文壇의 情熱消滅한 本相이다. 그러나 事理는반드시 表裏가잇는법이니 大家의權威라는 重壓이업슬사록 오늘날의 우리中堅이나 新進은 제몸을提拔하기 더쉬운일도아닐까?

學藝

朝鮮文學의 現階段

混亂과 懷疑와 不安의 時代

❶ 朴英熙

情熱의 激動과 興奮後에 오는것은 疲勞。現代朝鮮文學은 이 疲勞한 潮流우에서 再生하려는 意慾을 가지고 새로운 方向을 定하려고한다。그러나 意慾과 方向이 同一한

結果 를가져오지못하고 서로不確定한 코ㅣ스로 進行될때마다 迷路와 不安을 깨닷게하는것이다。

現代朝鮮文學은 再生하기前에 먼저 不安한 狀態에 잇다고 規定 할수박게업다。그것은 누구가 한가지로 보는바와가티 個個의 作家가 무엇이지 모르게 새로운길을 차즈려고 努力하고 또한 個個의 評論家가 새로운 創作方法을 案出하려고 思索하는듯하나 그結果로서 나타나는 現象은 特히 새롭다고 할만한 것이 업다。그뿐만이 아니라 文學은 커다란 懷疑가운데서 苦悶하고 잇다。

特히 새로운 結果가 업스면 어떠케 그 새로운

方向 을 차즈려고 努力하는가?

그것은 이때까지 作品에서 볼수업는 한現象—人間과生活의 再認識을 위한 題材와 作家의 人生觀의 變移로서 엇마쯤 觀察할수잇는바이지만 時代的 激情과 興奮을 通過해온 新時代의 朝鮮文學은 아즉도 完全히 興奮狀態를 버서나지못하야 多洲質的 混亂과 黎明期的 懷疑와 不確定한 不安의 薄暗가운데서 나는 朝鮮文學의 當面한 一時代라고 稱하고 이時代의 新現象을 觀察하여보려고한다。

이외가티 混亂과 懷疑와 不安의 文學이 어느때까지 갈는지는 規定할수업는일이며 그後에 무엇이 올것도 豫言하기어려우나 如何間 이러한 現象이 繼續하는 그동안이 짤든지 길든지 나는 朝鮮文學의 一時代를

形成 할수잇다고 規定하려는것이다。

過去 十年동안 朝鮮文學은 새로운 理想에서 그 柔弱한自身을 豊富하여서왓다。그것은 興奮한 浪漫主義의 正當한 理解와 分析과 批判도 업시 곳朝鮮的特質미려서 唯物論的 分野를 古領하기 서작하야 그 急速한 發達은 辯證法的唯物論이라는 最高峰에 到着하엿스며 文學은 直接으로 社會生活을 指圖할수잇다고 부르지젓다。文學은 生活의 反影이 아니며 곳 生活自身이라고 하며 文學은 獨自的

特權 을擴大强化하야政治的版圖안에 집어너케되엿다。이와 가티 興奮과 激情가운데서 文學은 古典的 學問의 系列를 끈허버리고 그 遺產을 否認하므로 新時代兒의 氣慨를 자랑하엿스며 由來로 文學의 情緖的 要素를 壓縮식히여 武士의 意志를 表現하려하엿스며 그 審美的 硏究를 觀念的이라고하야 一顧할 價値도 업시 생각하엿다。그러나 이러한 發達은 그最高峰에서 다시 再批判을 서작하엿다。現下 當面한 朝鮮文學의 새로운 一時代라는것은 여긔에서 始作되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藝術의 形象問題를 論議하엿스나 實際로 作品에는 아무런 具象的事實이 업섯고 寫實主義를 高調하엿스나 重要한

論文 로도업서 지내가버리고 或은 情緖問題를 再論하고도 古典文學의 遺產을 取得하자고 提議하엿스나 現實된것은 亦是 나타나지 안엇다。이것은 勿論 題目만羅列하고 그內的諸問題의 深奧한 統察과 硏究와 理解가 不足한까닭이라고 하겟지만 그보다도 더 한層 드러가서 생각하면 이 思想的 最高峰에서 나려오려는 新時代的 偏見는 그 機械的唯物論을 完全히 克服하지못한데 原因한것이다。文學을 文學의 圈內에서 觀察하려지 안코 亦是 文學은 社會的行動과 그意識의 附帶物로 從屬物로 利用物로 생각

朝鮮文壇近狀

中堅一部의沒落相

(2) 蔡萬植

藝術的手法에 洗練되어나오지 못한 作品은 기껏해야 新聞의 三面記事다。

더구나 主題가 作者의 知性의 洗練을 밧지못한것이면 그 作品은 啊업는 얘기가 되고만다。(知性이란말에 메단이 잇다고한다면 正當한世界觀이라고해도 關係치안타)

가령 李箕永氏의 短篇『돈』이라는 短篇만 노코보더래도, 돈이라고한 이作品의 主題에對한 作者의『이데아』는 아수常識의 圖를 벗어나지못햇다。常識은 藝術의敵이다。

돈이 업스면 가난하고, 안해가 바가지를 긁고, 子息이 病들어 죽어도 끔찍못한다는것쯤어라면 벙본쥐구도 밝서 아는 것이다。

◇

以上에서 나는 李箕永氏 밋 그의 作品을 例를어 약숙스런 말을 햇거니와, 그러나 李箕永氏 하나만이 唯獨 그러타는것이아니다。

그다지 數가 만치는 못하다고하지만 카프系의 現役作家中에서 한둘을 除하고는 남어지 全部가 모다 고로래다。(남을 꼬고잇는 나自身도 그축에 들기싱일른지 몰으겟다 勿勿 나는 카프系는커녕 오히려 머용을 밧든 存在기는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吳越同舟라고나 할른지)

아무든 모래알키리 서격서격한 文字를 羅列해노코 曰 作品입네 한다。그러나 作品이아니오 알들한 備眼精다。

知性的으로는 缺乏하고 文章 語彙 對話等 稚拙하기 요집 면면 新人에게 比하면 三舍를 避해야할 作品들이어다。

혼어 中堅의 早老를 말을한다。그러나 그것은 決코 早老가아니고 낡(鉛)이 비어저나온 것이다。얼핏鍍金이 벗어지고나니까 경이례하니 비어저나오는 납!드러나는 미전말이다。

◇

文學은 일허버려도 이데올로기ㅣ하나로 行勢하든건 옛말이요, 지금當해서는 子細히 헌植쓰듯하든 그 어데올로기ㅣ조차 달라 앗것스니 남은것은 文學的無智박게 잇슬때이 업다。

애初에 文學에對한 工夫가업시 出發했든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놀고먹은 대가품이다。한개의 短篇이 構成되는 한개의 主題를 어떠케 매만저야 하는지 그것부터 몰으는상 십다。知識이라컨 낡어빠진 常識밧이요 一般市民이 이미 러得한 現代的知性은 理解도 못한다。

그러니 써내논다는 小說이라는게 어른분이요 質은 둔별以下로 떨러진것은 當然한 이치다。

다시 말하거니와 主題에對한 作者의 이데아, 그리고 文章技術, 對話, 語彙 어느部分하나고 小說的이라가 업다。

崔載瑞氏가『안조방어文學』이라고 命名한것쯤 決코 억울한 誹謗이아니다。

手法이 그러한데다가 題材라는것이 千편一律로 가난한사람의 悲慘한 身邊雜事들을 그거나며 [illegible] 하지도못하게 여름이를 그러노코니까 白鐵氏로부터 [illegible]의 스토ㅣ러라고 빼아픈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

우리 後輩해가는 中堅一部는 앞으로 두가지中에 한가지하게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우리 라고한것은 謙字도 아니요 突然한 暴論도 아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工夫를 하든지 그러찬으면 方今 有望한 新人에 輩出하고잇스되 자리가 貴해서 發表하기가 任意롭지못하니 써 못대를 꺽고 물러서든지 이 둘中에서 하나를 擇해야할 고패다。

「고룡장」(高麗葬)이라는 말이 잇다。늙은이가 아무 所用도 안되면서 죽지도안코 老妄만 부리니까 산채로 묻어버렷다는 傳說이잇다。

우리도 그런『고룡장』을 당하지 안흐리라고 장담할 사람이 몃이나되는지、잇다고해도 고지들리지 안는소리다。

하면서 그 文壇의 地位를 保持하려고하야 現今의朝鮮文壇은 [illegible]에서 버서나지 못하고잇다。(계속)

異域의晩秋를마저서

「日記아닌日記」

(一) 玄卿駿

◇九月十日

雨도 가는비 물도 자는물、사람도 자는사람。

여기에서는 아모런 色당은情緖도 느낄수가 업다。

작금 秋夜三更 고달픈 꿈자리에서 故國의 예깃들 아련갑게 떠들어거다가도 寒窓으로 숨여드는 애끈는 胡弓소리에 놀라깨는때면 어설푸렷이 異國의 情緖를 느껴보기도 하건만 허나 그것은 너머나 瞬間的이고 客窓生活에 물들은 나에게는 平凡한 旅愁의 한토막에 지나지 못하는것이다。

大膽의 쌀쌀한 아츰저녁 조저분한 좁다란 골목에 우두머니ㅣ나 [illegible] 경스런 馬車 려가는 滿洲人아가씨들의 妖艶한 그姿態。

거기에는 分明히 色당은 情緖가 [illegible]

그러나 그것도 나의눈에는 어나 익숙한 凡俗한 風景이며 녹音한 情景이다。

이러한 凡俗한 風景에서 뿜을추려 한번 豆滿江岸으로 向하여본다면 거기에는 흘러감달은「파노라마」가 眼前에 展開되는것이니、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異域의 情緖를 찾거되는것이다。

허리띠가튼 江帶을 사이에두고 압뒤로 갈려진 두곳。

山도 그山이오、물도 그물인데、가서한豆滿江의 情緖는 너머나 寂寞하고 寂廖하고 深刻하다。

봄이면 봄이라고 가을이면가을이라고、一年에도 季節을따라 四時로 變하는이江우에 映寫되는 오갓 喜悲劇。

그것은 今日의人生에게 잇서서는 眞實로 悲觀스러운 悲劇이며 눈물겨운 喜劇인것이다。

일홈봄 解氷期면 江北으로 나르는 제비떼를 따라 낫설은길을 헤매여 오다가도 문득 눈압을 가로막는 어江畔에 大膽 그들의가슴은 얼마나저렷스며 발길이 무거웟스랴? 無心히 흘으는 江물이니 물길도 바이업구나。

還鄕의期約업는 永遠한 집씨ㅣ의길。

인제 가을이라 月色조차 밝으니 江南으로江南으로기러기는 옛길을 도로 찻저가고 제비마저 도라가건만 한번 떠난그들은 恨많은 豆滿江나루 배를 꿈에서나 타보는지?

그러나 이러한 怨恨의江도 時代와 時局의變移에 따라서는 하로사리와가튼 人間들에게 瞬間的이나마 그어떤希望(?)의契機를 주기도하는것이어니 어江畔을 사이에 끼고 압뒤로 마주안즌 [illegible] 貿易하는 오갓 商賈의 雜商輩。

거기에는 生을 死에다 걸고 明日의 希望을 더듬는 버저린 人生의 悲劇이 하로밤사이에도 幾어시 演出되는것이다。

아아! 오늘밤에 몇명이나 저 江물을 흘러가 하얏슬까?

날이 밝아 깨어보면 江물은 如前히 말없고 푸른우게 아모일도 업는듯 悠悠하게 흘러흘러 나려가는것이다。

雜記帳

自稱新羅人의 索倫族(Solon)

契丹國志歲時雜記속에 三月三日날 契丹人들은 나무로 산인 토끼를 과녁으로 삼고 편을 갈러서 활쏘기를 내기하면서 그날을 淘裏化라고 부르는데 淘裏는 토끼라는 말이요 化는 활이라는 말이라고 잇다。내가 二十餘歲때 이글을 보다가『淘裏』와『토끼』、『化』와 활이 비슷한데 興味를 가저 契丹人의 그當時 言語를 硏究해 보고자 생각하얏건만은 契丹의 文獻도 殘滅되고 遺民도 어떠케 되얏는지 모르고 또 내學力도 모자라서 不得已 斷念하야 버리고 만일어 잇다。年前 欽定遼史語解에서『遼以索倫語爲本語』라는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當時契丹人의 말이 오늘날 索倫語로 남아잇는것을 알앗다。索倫語는 滿洲系에 屬하는 퉁구쓰語族中의 하나로서 아즉도 滿洲 一部分에 남아 잇는 말이다。그러데 여『索倫』(Solon)은 蒙古語의『솔론』부터 由來된것이요 蒙古語의『솔롱고스』는 新羅를 가르친 뜻이다。事實은 蒙古語의『솔롱고스』뿐이아니라 滿洲語의『솔호』와도 떡 密接하게 보인다。勿論 索倫人自身은 스스로『에벵키』라고부르는 모냥이다。『에벵키』는 퉁구쓰族의 만히가 自稱하는 語義未詳의 말이다。何如튼 어째서 그들을 新羅人이라고 부르게 되얏슬까? 혹여나『淘裏花』와『토끼활』의 두말이 類似한 그것과 一脈의 相通이 잇지나 안한것인가? 그들의 傳說이 自己네는 東方으로부터 現住地에 옮겨 왓다고 하니 그 東方이란 곳 녯날 新羅의 領土中 어듸가 아니엇슬께 모른다。그들의 言語와 傳說을 좀더 기피 파고 들어간다면 그것쯤의 解決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것이다。勿論 現在의 索倫語에는 蒙古語系의 하나인『다굴』語가 만히 輸入되야 잇는 모양이다。다굴 族은 北滿洲 嫩江附近에 居住하고 잇는데 遼代부터 索倫族과 곽 만히 混居하야 오는터 言語에 잇서서도 相當한 影響을 끼쳐주고 잇는것이다。左右間 新羅人의 嫡系인 우리로서 滿洲 어느구석에 또 한個의 新羅人이 存在하다는 그것을 어떠것 모르고 잇섯다니 넘어나 섭섭한 노릇이다。그들이 참말로 우리의 近緣親인지 또는 가짜인지 아즉 判明되지 못한 일이지만은 엇던 그 事實을 안것만도 無限스럽게 생각된다。이건 또 좀 떤 여야기나 東蒙古 一帶에서는 古墳을『新羅人의무덤』이라고 부르고 잇다。鳥居氏의 旅行記中에서 보면한 記憶이 난다。

(鐵出生)

南洋紀行

古都『바다비어』

(一) 李永春

『바다비어』는 蘭領東印度의首府인 同時 西部瓜哇의 首府입니다 橫木의街 水의街 平面의街로서 新舊市街合하야 人口約大十萬餘로 그面積은 巴里의그것과 恰似하다하니 相當히 큼니다 舊『바다비어』의一角이 商業中心인外엔 全市街가 住宅地요 商業地로 限界가 判然치안은데 物色이잇고 植民地都會의 形態가 업습니다。또舊都인관큼 歷史的 建築物과 名所가만흔데『메낭개ㅣ드』『골프링크』動物園等은 그代表的인것이라 하겟슴니다

나는 當地在住 唯一의 朝鮮出身으로 開業醫格을 獲得한李星斗醫師의 案內로 博物館、醫科大學、主要官廳等을 보게되엿습니다 李醫師를알게된것은 旅館主人에게 朝鮮人으로 이러한이가잇다는 消息을 듯고 電話로서 氏의來訪을 請하야 各代表와 會見한後부터 모든案內를 依賴하게된것입니다。同氏는 當年三十六歲로 臺灣醫學校를 卒業하고 다시 日本高等學校와 九大醫科를 卒業한後 瓜哇에서 開業할 希望으로 入國하엿스나 瓜哇開業資格은 다시 和蘭語로써 試驗을 通過하야 되는制度이까닭에 意를決하고 다시 當地醫學大學硏究科에서 以來五年되는 今年에야 그難關을 通過하야 開業의免許를 獲得하엿다합니다。이러한 [illegible] 難關은 結局 和蘭政府가外國人醫師의 入國을 歡迎치안는 政策에서 나온것이요 決코歡迎하는 態度는아닙니다 瓜哇全體를通하야 約四千餘名의 日本人中 日本人醫師는『스라비야』에 한명이잇슬뿐입니다。當地領事館과 日本人會에서 만흔 應援을하야 目下開業準備中에 잇다합니다。

開業은 至極히簡單하야 醫師는 診察하고 處方箋을 患者에게交付하고 投藥은아니합니다 여기는 醫藥이 分業으로 되여잇습니다 一回診察費가 三一五盾이요 往診이면 五ㅣ十盾을바듬으로 朝鮮서開業하기보다 쩍낫다고 생각됩니다 蘭人은 開業하지 三年假量이면 相當한 生活의根據를 잡는다고합니다

當地博物館은 和蘭이 蘭印領有以來의 各種圖籍『스마트라』『자바』『보르네오』그外 南洋土人의 古代로부터 現時에 이르기까지의 各種生活資料가 豊富히 陳列되엿고、그外各國貨幣、陶器類等이 만히 蒐集되여잇습니다 나는 우리의자랑 高麗磁器의 陳列을 찻고저 數次蘭印陳列場에서 調査하고 또案內人에게 물어도 차즐수가업섯습니다 或外國다른곳 博物館에는 出品되여잇는지 모르나和蘭의자랑인 어博物館에서 그一片도 차저볼수업는것은 甚히섭섭하엿고 따라서 當局或은個人으로서라도 國內에서만 자랑하지말고 널니外國에도 출品하고 宣傳할必要가 잇슬줄로痛感하엿습니다 貨幣室에가서는 數千個國의出品이잇는中 高麗時代의貨幣만 數百個陳列된것을 發見하엿습니다

當地醫科大學에가서는 맛침放學中임으로 學生의 工夫하는光景은 보지못하엿스나 各教室을 차저보고 또附屬醫院도 診察所와 入院室을 求景하엿습니다。本校는 元來初創當時에는 土民과 中國人을 爲하야 하는것이어 目的이엿스나 漸次內容의 充實함을 따라 白人도 入學하게되여 現在土人이 二百六十人 中國人이 一百人 白人이百人 合五百六十人의 學生이엿습니다그러고 敎授는全部蘭人이고 一二人이 歐洲他國人이라 하며 그敎授는 全部和蘭서 派遣하다합니다。또本校卒業生은 和蘭本國醫科大學卒業生과 同一資格을주는다고 합니다 卒業生은 無試驗開業免許制度가 아니고 全部在學時代 國家試驗制 本校敎授가그 試驗官이으로 卒業試驗이 國家試驗과가치 되여 通過한後에야 免許를 엇게된다합니다。各基礎學校室에서는 硏究하고 [illegible] 안코 卒業하면 거이開業이 目的임으로 各敎室助手로 남는이는 一二人뿐이라합니다 따라서 各敎室의 硏究設備는 貧弱하고 業續도 보잘것업고 病理學敎室에서 多數標本을 實驗動物로『마라리아』에 對한 硏究를 하는것이 注目되엿습니다 病院에서 死亡한 患者는 全部 屍體冷藏庫에 두엇다가 내보내는것이特異하엿습니다 病院入院室은 白人은 따로 分離되여잇고 그外土人、中國人患者는 一二三等室로 업니다。이것은 附屬病院이 蘭印無料診療機關의 市民醫院이됨으로 三等患者는 全部施料라합니다。當直醫師는 土民이 만코 看護婦도 亦是土民이 絶對多數올시다 學校、病院의 建築은華麗하고 入院室도 淸潔합니다

(寫眞은 土人의農家)

科學

依然兵器의女王格인

火砲의種類

(上) 閔正勳

火砲의 分類는 그區別하는標準에 딸아서 種種으로 할수잇다。

(一) 彈丸이 飛行中에 長軸을 軸으로해서 旋回運動을 하는것과 그러치안흔것 卽 內部에旋條가 잇는것과 업는것으로서 旋條砲와 滑腔砲로 區別하고

(二) 彈丸의 裝塡法을가려 前裝砲와 後裝砲로 區別하고

(三) 砲身의 形狀 따라서 그 性能을가려 臼砲 加農砲 榴彈砲의 셋으로 區別하고

(四) 彈道의 形狀을가려 曲砲 平射砲 高射砲의 셋으로 區別하고

(五) 威力强大를 주장삼으며 運搬輕便을 주장삼으면 따라서 重砲와輕砲로 區別되고

(六) 發射速度의 大小를 가려 重砲 速射砲 自動砲等으로區別되고

(七) 그用途를 가려 野戰砲 攻城砲 海岸砲 列車砲 高射砲 潛水艦砲 戰車砲等으로 區別된다。

그中에서 臼砲 加農砲 榴彈砲等 區別은 아래와갓다。

(一) 臼砲 砲身의 기리가 十二、三 口徑以下의 짧은砲身

(二) 榴彈砲 十二、三口徑以上 二十口徑以下의 中間的인火砲

(三) 加農砲 砲身 二十口徑以上의 火砲다

여기서 口徑이라고 하는것은 砲身의기리가 彈丸直徑의 몃倍라는 意味다 砲身이 길수록 火藥瓦斯의 힘을 長時間 바더서 彈丸의速度가 빨러지고 또 遠距離에 이르게된다 勿論 有効限度는잇다 海軍砲는 四十五口徑으로부터 五十口徑이 普通이다

또 그中에서 [illegible] 自動砲等의 區別은 아래와갓다

(一) 重砲 中等口徑以上의 火砲요

(二) 速射砲 發射迅速한 中等口徑以下의 火砲니 發射迅速이란 一分間六、七發以上의意味요

(三) 自動砲 火砲의後座(發射의반동)의 힘으로 砲身이 後退되는것) 또는復座(壓搾空氣나 油壓으로 元位置에 돌려오는것)中 그動作이 利用되야서 尾栓의 開閉만을 自由로운 半自動砲와 또彈藥의 裝塡이나 尾栓의 開閉와아게 彈藥의 裝塡도 自由로운 合自動砲가 잇다

그러나 火砲를 말할때는 大槪로 그用途를따라서 野戰砲니海岸砲니하는 分類만이 쓰게되다。以下 그分類를 딸아서各砲의 槪要를 들어 보이기로한다

(寫眞은 加農砲)

新刊紹介

▲週刊太陽 第十四號 發行所東京市赤坂區表町三의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一部五錢

▲한글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文藝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壽松町四五 世紀社 振替京城二五〇一八番 定價一部五錢

▲主日學校申報 第八十五號(月刊)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定價一部五錢

女性

朝鮮日報社出版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十月號定價二十錢(送料二錢)

名流獨身生活打合記 李淑鍾氏 徐恩淑氏 車美理士氏

男武裝의女勇士(李适亂時) 車相瓚

支那의女人軍隊……春城

朝鮮八道婚姻儀式巡禮(咸鏡道篇) 李軒求

공은男性界의慨嘆할傾向 宋今璇

家政과男便의無誠意 沈恩淑

피아니스트金元福論(女流人物評) 李應淑

누에치고베도짯드니(鄕土有情記) 金午男

參謀長이된酒母(그夫人의一生) 申鼎言

海外女性犯罪綺譚 金汶植

女性是非 崔載瑞

숫장수의妻—李善熙

空想一題—金晋燮

달의傳說 鷺山抄

女貞篇 高信篇 (5)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畫報 十月의表情

最新科學的美容體操法

그나라와그衣裳(英·米·佛·獨·伊·印·度·比律賓·暹羅·等)

秋夜長(讀書·砧)

朝鮮映畫 沈淸

滄波上의敎訓(女性讀本) 李殷相

中篇小說 거리의牧歌 李孝石

短篇小說 女人의旅裝 李七亭

短篇小說 춤추는男便 金南天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詩 바다 白石

별·薔薇 尹泰雄

歌 初秋의化粧法—吳淑根—

婦人女學生寢服—任貞爀—

戰爭과美人計 李鍾模

가을의表情

코스모스—李相昊

丹楓—白石

落葉—李源朝

갈꽃(蘆花)—李秉珏

들菊花—咸大勳

기러기—盧子泳

귀뜨람이—盧天命

朝鮮女性과家族制度 高凰京

內外珍聞 主婦備忘帖 女性界消息 알어둡세다 十月 모재 웃음거리

表紙 金奎澤 挿畫 鄭玄雄 扉畫、挿畫 崔根培

그의自叙傳 李光洙著 定價一圓三十錢 送料十九錢

朝鮮女流文學選集 女流文人十四家執筆 定價一圓 送料十九錢

世界傑作童話集 文壇十五家執筆 定價八十錢 送料六錢

Hommage a portrait ❶

스타─畫像讚

시들지 안는 蠱惑의 꼿
스탄벅 떠러저 외로운
『듸─트─리─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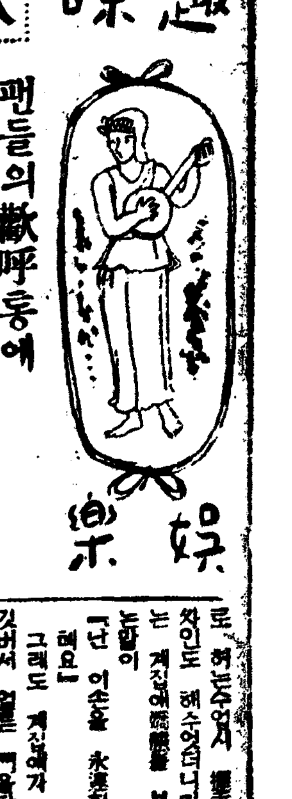
……咸 一 步……

只今은 갈려젓지만 듸트리히를世上에 내보낸것은名監督『스탄바─』이다 스탄바의 메미니즘이 그리 만드럿는지或은 天來의타고난 北歐的인 空氣가 듸트리히를 그러케 만드럿는지는 몰으지만 듸트리히를 보면 거기 女子의純情이란든가 典雅한香氣는 하나도 차저볼수업고 世上을 다 격고난 다시말하자면 人生을 만히 體驗한 女性만이 가질수잇는그中年女性의 蠱惑性을 늣길수잇다。

그러기때문에『嘆息하는天使』나『모롯코』에서나『間諜×二七』이나 겨기서 늣기는듸트리히는 모─두가人間性的純粹性을 늣기지못하게되는것이다더구나『스탄바』과의오랜동안의因緣(製作上의)을 끗는最後의作品『西班牙狂想曲』에잇서서도結局 듸트리히는 거기 女性으로서의 殉情은 업섯다 오히려 非人間的이엿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듸트리히』의 性格을잘 살린것이라할수잇다 말하자면 그作品은『스탄바─』이 製作部長과의 不和로서 他社로 옴겨가게되엿건만『듸트리히』는『스탄바』을 끗내따라가재 엿엇기때문에 西班牙狂想曲은『스탄바』自身과의 關係 말하자면 베바當하는 스탄바의心境을 그린作品이라할도 틀리는데 어떠튼여기서도『듸트리히』는 冷靜하고 自由奔放한 性格과 人性을만히 體驗한 純粹性을잇은 感情이 橫溢되여잇는것을 엿볼수잇는것이다。

어번 渡英하야 佛蘭西監督 페─델의指導하에『武器업는騎士』에 主演하야 듸트리히가 從來저서오든 그런性格을 一變식혀『血과肉의人間을 發見』하게될만드럿다니 그映畵가오는날을 기다리고잇거니와 어떠튼 나는 듸트리히의 그超越한듯한 거만한性格 男性을 나려구를듯 超然한 그氣風과人生을 만히 體驗한 그風貌 그러나 거저는 더러운빗이조금도 업는 그수態의印象이 머리에 늘남아잇는것이다

趣味 娛樂



人 氣 有 罪
팬들의歡呼중에 텔러─遭難

○……昨今부러人氣沸騰하는美男俳優 로버─트·텔러─는 그레타·갈보와 共演한『椿姬』에서 果然『양키─·껄』들을熱狂식혓는데 지난八月下旬 休暇를 어더가지고 歐洲旅行을 떠나는데

○……뉴─욕에서 배를가려아 배에 搭乘하려한즉 例에依해서 熱狂的팬의 歡呼를바덧다。몰려드는 팬의群衆에밀려서 一時는 꼼작도못하고 잇다가 겨우 몸을빼서 船室에드러온즉 이번에는 베─드밋에 계집애가 하나 숨어잇다 아모려 달래도 비러도 나가지 안흠으로 허는수업시 握手로 해주고 싸인도 해주엇더니마는 그적새는 계집애들이 부려져면서웃는말이

『난 이손을 永遠히 씻지안흘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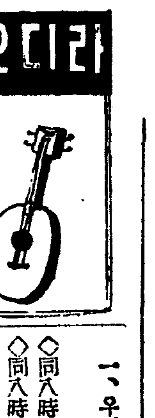
그래도 계집애가 나가는것이 깃버서 얼른 門을닷고 四方을 둘러보니

○……이번에는 문항에 버서두엇든 옷갓이 업서지것을 發見하엿다。다시 서방을 둘러보니 어느틈에이지 船室의 도어─가 열려잇는지라 그계집애를 모라내는동안에 도적(?)을 마지셈이니 팬들의 熱狂的歡呼를 밧는것도 조흔일이지마는 이지경이 되고보면 여간 人氣가좃 업서도 安身保命이나 하는것이 上策일는지도 모를일。

獨逸映畵界도 필림不足難
峻嚴한統制結果

獨逸서 映畵統制의 峻嚴한것은 世界의 注目을 끄으는것이엿는데 그때문에 目下의 獨逸의 映畵館은 猛烈한 필림不足으로 悲鳴을내이게되엿다。토비스會社는 技術的理由로 撮影을 中止하고 아메리카、필림中에는 數個月동안이나 倉庫에 감추어진것까지잇스며 主演俳優가 아리안族이 아니라는등 不斷하다는등 猶太的 要素이라는등해서 겨우 만드러 노한것도 通過되지 안는것이만타 그러니까 제일 困難한것은 엑쓰트라의失業問題이고 封切 映畵館으로서 伯林、웨스트、엔드의 一優秀映畵館은 製作紹介의 意味로서前씨─즈의 말례!네、딋트리히主演의『希望』을 上映하야 最大의『우─파─·파레스』와 가른것도 오─스트리아의 녯날喜劇物을 敗鎭한것이라고한다。

라디오



三十日 (木曜)

◇午後六時 (平) 라듸오名勝巡禮 平壤篇 柳京어린이會 指導 金永善 伴奏 金潤善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예수의言行』 沈明燮
◇同七時三〇分 (淸) 更生農家體驗談(第五回) 一、死線에서一路更生의彼岸으로 咸南 尹載源
一、우리집의更生 咸北 儀英爻
◇同八時 레코─드音樂
◇同八時一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短簫 崔壽成 李承煥
◇同八時三〇分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타령 四、平壤念佛 五、자진念佛 六、자진배다라기 大笒 金永根 張鶴榮
◇同八時五五分 名唱連續唱劇調 終夜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皇城올나가는데 鼓手 韓成俊 李東伯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 二曲

一日 (金曜)

◇同六時 (東) 童話
◇同六時一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同八時 (大) 義太夫
◇同八時三〇分 (大) 歌謠曲
◇同八時五五分 (東) 浪花節
◇午後〇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어화靑春 나、唱劇調 赤壁歌와새타령 杖鼓 丁九成 朴綠玉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소─獨奏와童謠 一、童謠(1)고향길 (2)望鄕 二、소─獨奏(할롯드) (1)로─레라이(2)〇드리처스 三、童謠(1)물새발자욱 (2)落葉 四、소─獨奏(한마롤슨) (1)브람─스의자장가 (2)올드블랙조 소─獨奏 林鴻恩 童謠獨唱 田山草 伴奏 李英愛
◇同六時二五分 講演『始政記念日을當하야』 金大羽
◇同七時四〇分 軍歌(一夫) 敵은幾萬 明新合唱團 指揮 玄濟明
◇同七時五五分 古談 느리난銀甕 金瀛雲
◇同八時二〇分 (東) 管絃『메─르헨드』組曲 그리─그作曲

◇同九時 歌詞 一、寒氷曲 指揮 篠原正雄 二、吉備集 大笒 杖鼓 朴枕 崔洞仙 金永姬 金一宇 日本放送交響樂團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新日本音樂
◇同六時 (東) 童話
◇同六時一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同
◇同七時四五分 (東) 雙六
◇同八時十五分 (東) 俚謠
◇同八時三〇分 (東) 管絃樂
◇同九時 (東) 時事解說

二日 (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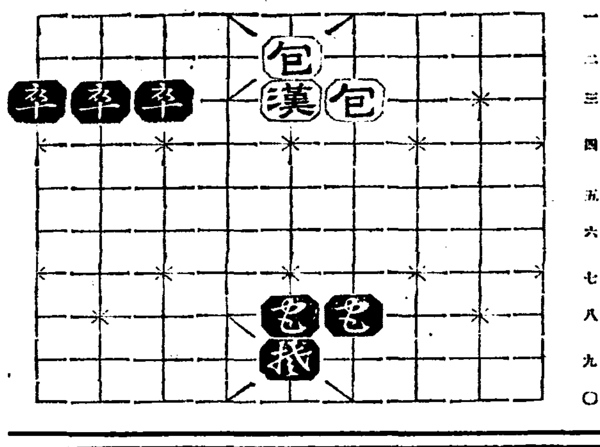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東)아코─듸온 平茂夫
◇同一時 講演 (國語)─龍川 衛戍病院으로부터中繼─(傷病將兵代表) 陸軍步兵大尉 馬鳴龍川衛戍 傷病將兵慰問放送─病院으로부터中繼─
一、人事……末
二、童謠箏曲……鄕玲會
三、童謠……獨唱 山芽平三郞 伴奏 OK오─케스트라
四、舞踊……張明玉 外
五、歌謠曲……마리子 外
六、小歌振……秀千代 外

七、軍歌……早川榮 外
◇同六時 어린이科學『기울花草』 朴萬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琉球風俗이야기』 每日申報 金日坤
◇同七時四〇分 時事解說 베르린로─마의聯絡 朝鮮日報 徐椿
◇同八時一〇分 軍歌(一夫) 敵은幾萬 明新合唱團 指揮 玄濟明
◇八時二五分 라듸오코메듸『約婚事變』全一景 配役 錫九…金昌集 乱芬(그의約婚女)池季順 明根…金永根 明順(그의妹)池崔順 老人(明根의父)朴濟壽 라듸오劇同好會 作及演出 金健 効果 許蓼
◇同九時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흥타령 吳翠翠 金蓮守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스키─
◇同六時二五分 (京) 講演
◇同七時三〇分 (臺北) 講演
◇同八時 (東) 早稻田對明治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은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시오 (博譜係)

◇博譜大集 1 【問題】

御愛用御禮

써─비스셋일

資生堂石鹸

살거칠을속속드리어롬답게、하는크림·샤본

조흔샤본에고흔景品

三個入一函

사실때마다

銀座好み お化粧袋 進呈！

스폰지·빽

資生堂石鹸 の秋 豪華サービ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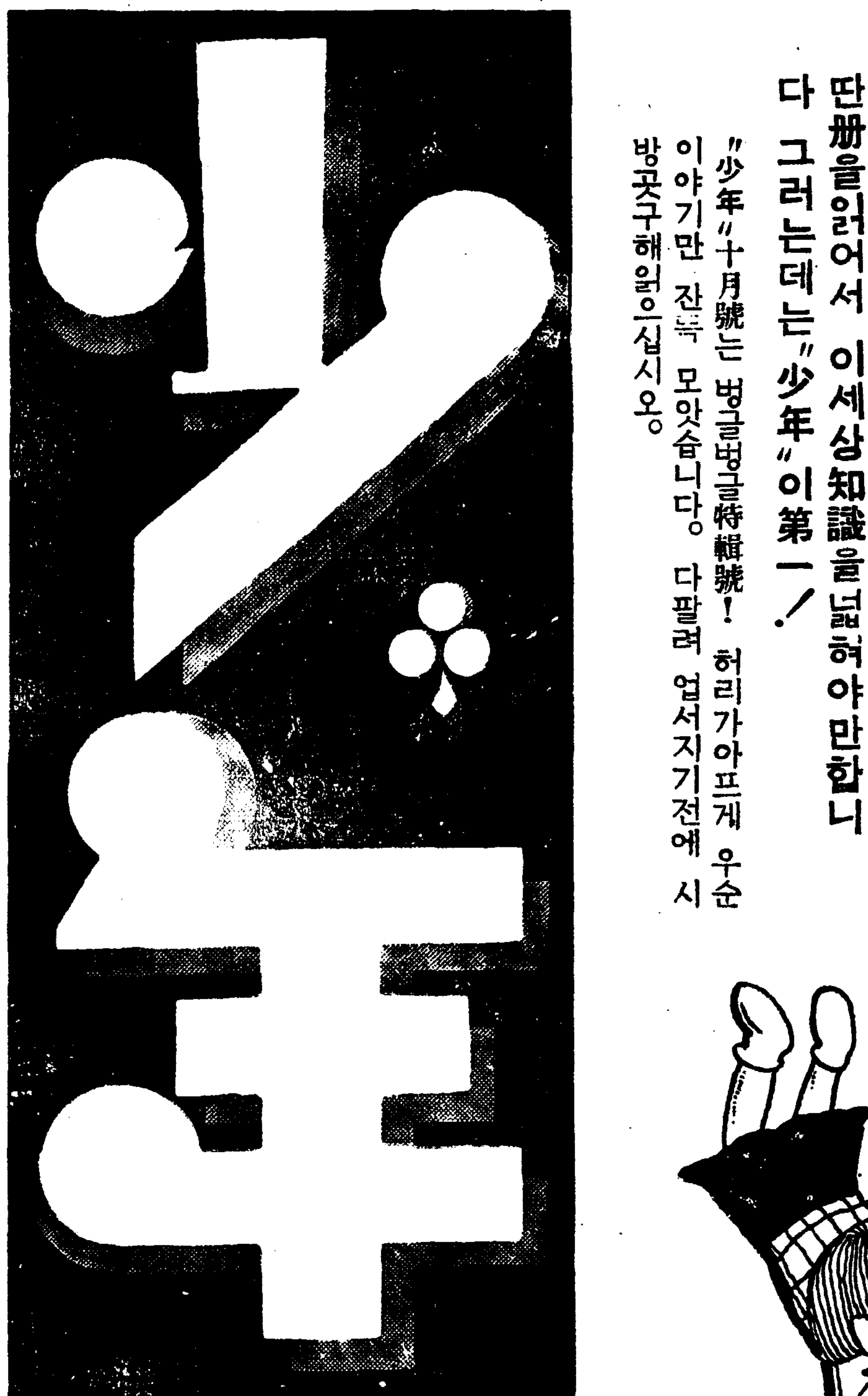
東京 資生堂 銀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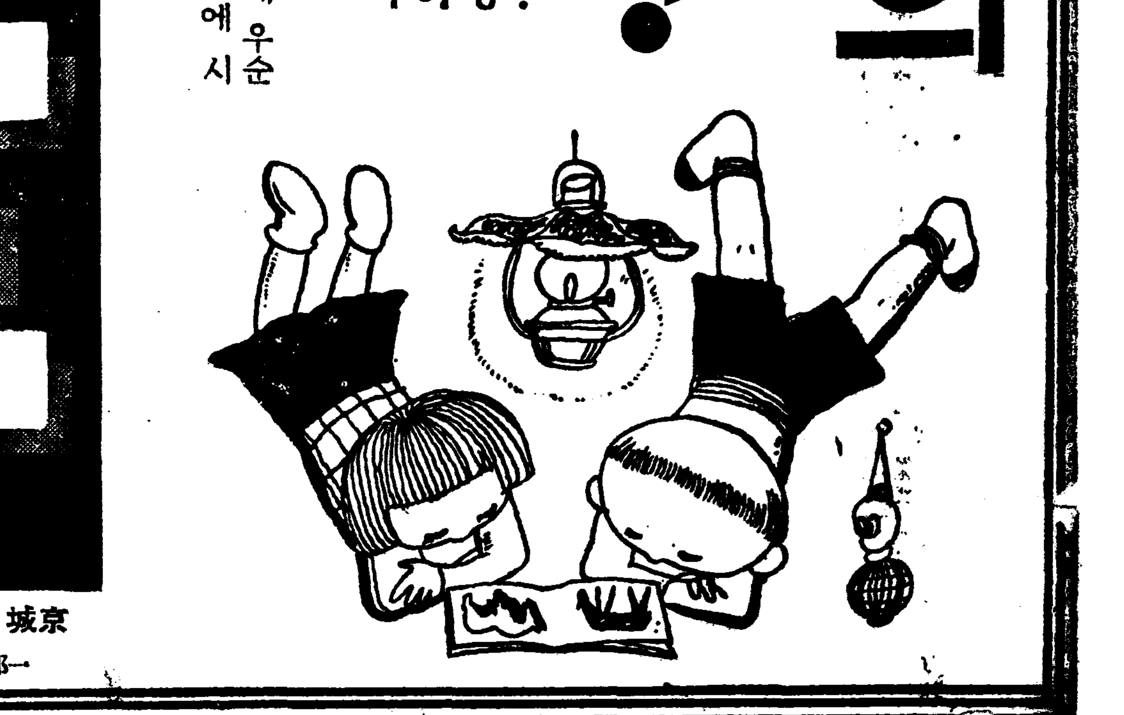
本社平壤支局 電話一〇四四番

朝鮮少年의 代表雜誌！

七百萬朝鮮少年의 정다운 동무 "少年"!
이담에 커서 훌륭한사람이되려면 學校공부만 가지고는안됩니다 學校공부 틈틈이 딴册을읽어어서 이세상知識을넓혀야만합니다 그러는데는"少年"이第一！

"少年"十月號는 벙글벙글特輯號! 허리가아프게 우순 이야기만 잔뜩 모앗습니다。다팔려 업서지기전에 시방곳구해읽으십시오。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發行

一部五十錢(送料一錢)十部以上團體注文二割引

中部版

支那事變影響으로 各線入荷모다激減
上海、北支線尤甚、大連만少增
仁川經由의海運不振

【仁川】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에 인천항통하야 출입되는물화를 조사한바에 의하야 칠월팔월에 상해(上海)선만은 전연 취항이 두절되야 물화의 출회가 두절되엇슬뿐아니라 북지(北支)방면도 감소하엿스며 대련(大連)선만은 증가한형편이라는데 자세한수자별은 다음과가다 한다

八月中仁川出入荷物調査

北支線 入荷 五六七噸減 出荷 二五七噸增
上海線 入荷 一、九三〇噸減 出荷 三四〇噸減
大連線 入荷 一三六噸減 出荷 一、六〇四噸增
東京線 入荷 一、一三五噸減 出荷 三、三九五噸增
大阪線 入荷 四、八八五噸增 出荷 一、八一三噸增
臺灣線 入荷 六四七噸增 出荷 二四〇噸增

楊平軍事講演

【楊平】현하시국에감하야 [illegible] 주최로 지난구일부터 양평공보교 대강당에서 군사강연회를 개최하얏는데 먼저좌등(佐藤)서장의 개회 [illegible]

陵谷에暴雨禍

【陵谷】경의선 릉곡역전(京義線陵谷驛前)부근도 지난이십륙일 폭우로 비여노흔벼를 무수히류실하고 제방이무너저서 금파가 굉흥거리는 벼논을쓰러미여 그참상은 이루말할수업는중 가장손해가만흔것은 이를들어보면 고양군원당면식사리 최도봉(高陽郡元堂面食寺里崔道峰)씨는 떠내보낸벼가 약이천석이고 제방이끈허저 못친벼가 약이십두락으로 현시세로 환산하면 약일천삼사백원에달한다

水原郡秋繭五千貫
現金구경하는農村

【水原】수원군내 추잠(秋蠶)은 소립(掃立)이 증가함에따라 서추에서는 회원산실출명이 그남아 칠부터 가마니(叺)를 짜서팔어 그도으원홉근방한 경으로 박지엇다한다 잠의생산도 매년증산하야 금년에는 추잠사료수기 오천관이나되며 가격도 상당하야 일만오천원이나된다 이것을 양잠가호수이천이백호에 분배하면 매호에 평균칠원이라는 돈이 요사이 어가 다소농촌에 금전융통이될 으로 일반양잠가는 적지안흔도움이된다고한다

仁川殘留支那人
百戶에五百餘名
便船업서서進退維谷

【仁川】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에 인천체류하야 귀국한 지나인이삼만오천여명에 달한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이십칠일 영선(英船)신화호(新華號)로 위해위(威海衛)로는 복지가 최종항해(最終航海)한 다음에는 이방면에 취항하는 선박이 당분간업스리라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와한가지 인천부내에잔류지나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부일백십팔호에 인구 오백오 [illegible]

新設할福溪公普의 校舍着工을要望
寄附金도完納、基地도決定
郡當局의處事만注視

【福溪】전조선각지에 어느곳을 물론하고 초등교육보급시설이불완비하여 학년아동의 입학난은 문자그대로 곤난을당하고잇는바이지만 우리평강지방에도 상당히고조되여 소위일면일교제는수년전에거이다 실현되여잇는현상이지만 아직도이려 매면시하기에는 학령미취학아동들을리고잇스므로 평강군복계(平康郡福溪)지방주민들은 복게에보교를 설설하기위하야 수년간두고 군당국과 교섭을 거듭하여 오는동 지난삼월초순에 이르러 초등학교확충안 십년계획에의하야 강원도로부터 평강군내에 보교일교를 더설치하라는내시를밧고복계유지장개식(張開植)씨이하 몇사람은 평강군당국과 절충하야 복게에 설치하기로교섭되여 도당국허가의내시까지밧고 이래기성회를조직하고 공보설립에대한 만반준비를다하고잇다함은 보지를통하야 기보한바어니와 총공비 일만삼천원(一萬三千圓)중 지원민부담액 륙천원도거이완납되엿스며 지난륙월상순경에는 거리와교통에 적당한 평강군 상복리(上福里)에 기지구천여평을 매수하고 칠월초순에는 공사에 착수하겟다고하엿스나 삼개월이지난 금일에도 아직착공을보지못하고잇서서 일반주민들은 군당국의처사를 주시하며 일부공사라도금년내에실시하여주기를 절실히바라는동시에 닥처오는 신학기입학난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富川郡에도大豊
比平年作約三割增收

【仁川】작년도에부천군(富川郡)내의 농형은 대풍작으로자화자찬수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금년도에는 의외의 풍작을일우워 작년도에비하면 뚜렷한수확 예상케하며 평년작에비하면 약삼할의증수상태이다 작년풍작의 론난을 맛고잇는바 금년도에는 대풍작으로 저양가를하는 허울리우고잇다한다

江華郡도豊作

【江華】강화군내 금년도 수확예상은 지난이십일현재로 제일회조사가 완료되엿는바 과연 예상보다도 더만하서 작년에 비하야 대략 삼할를부가 작종수로 총수확석수는 여석구만석을 초과하리라하며 [illegible] 지난이십일 강작하습레한 후우는 일벼를식미리하는 농나온 우량으로 어우러한 검속도 잘지안올리라고 한다

婦人講演盛況

【金浦】지난이십칠일 오전십시반부터 김포공보교(金浦公普校) 강당에서 [illegible] 대강당에서 경기도회의원원덕상(元德常)씨를초빙하야 부인강연회가잇섯는데 시국에대하야 부인에게 큰감명을주엇스며 당일참석한부인이 약이백여명에달하야 자못대성황을 이루엇다한다

農村婦人製叺獻金

【楊平】지난이십삼일동만보국일을기하야 양평군지제면송현리(楊平郡砥堤面松峴里)전곡(田谷)부락농진회 부인부(婦人部)[illegible]

桑田에施肥奬勵
蠶繭增産도計畫中

【淸州】각지방관청에서는 여러거지로 이미상시대책을 강구한다함은 본보에루보한바어니와 충북도당국(忠北道當局)에서는 [illegible]

旅館專門의窃盜를逮捕

【水原】수원경찰서에서는 우연한경우에 [illegible] 경기도통지의 각려판으로 도라다니며 만호돈을 절취하는자를 체포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인데 이자는 본적을 강원도화천군화천면중리(江原道華川郡華川面中里)에두고 현주는고성군고성면동리(高城郡高城面東里)에사는 [illegible] 원도양양 횡성 령월 울진 경상북도상수 충북제천 충남대전 [illegible] 가서 각려판에 숙박하는손님의 각려판에 고용인으로 들어가서 주머니를 뒤저 돈을 절취하야 도주하야 멀리타군으로가서 돈을소비하고 그곳서도려관고용인으로들어가 전기와동일한방식으로 려객의돈을 절취하야 소비하다가 [illegible]

手巾行商獻金
春川女子館서도

【春川】춘천의 유일한사회사업기관인 춘천녀자관(春川女子館)은 감리교(監理敎)녀자선교부(女子宣敎部)의 경영으로 녀자사회사업으로는 단연 독보를거려오든바 금번 지나사변이 폭발하자 각지에서 소위총후봉사를 [illegible] 총후에서 면천을기함에따라 동녀자관에서도 손수건을만들어 관공서(官公署)로 행상하야 일금십이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야 이목을 끌엇다고한다

江華에서婦人講演

【江華】중추원참의 원덕상(元德常)씨의 강연회는 어제일 오후한시부터 강화공보교 강당에서 개최하얏는바 각촌락의부인회회원 이백여명이 모히여 성대하엿고 동오후네시 무사폐회한바 삼십일에는 동온수리(溫水里)에서 개최하리라한다

井戶改修도안코 道路修繕도怠慢
이번豪雨로數處橋梁도流失
江華府內面民不平

【江華】강화 군내면은 일천세대에 팔백천의 인구를 포용하고잇는곳으로 항상 모ー든시설에불완전한것은 주민이한결같이 으키고잇섯거니와 금반 의외에 습래한폭우는 결국 부내면당국의 불비한 시설을 폭로식히데 지나지안는다 금년도 예산면을 보면 시내 정호수선비로 삼백오십원이라는 금액이화면어잇슴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진 판개로 요전비에는 유안주민이 음료수관을 당하고 할수업시흙탕물을 먹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 또다시 강화공보교압흐로부터 강화종로를통하는 간선도로는 팔비아동이 통학하는 중요한통로인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요래가리 도로관제로 소홀하지 하니 발등은 도저히 이길로 통행할수업는상태이다 그리고금번가를비에 일진수백원씨드려서 시설한 돌과 삼다리에 석교가 도군데식 유실을 당하게될도일반은 부내면당국에 대하야당이 말동 면형의원들에게 까지를 원망이 안타는바 이는면당국과 리이때에 면형의원들도 면당국 읍나무나 경려안는다는것이 한원인이라고한다

東署管內秋季淸潔

동대문서에서는 관내 추기청결을 다음과가티 실시한다

◆十月二日 崇仁町 忠信町 花町 蓮建町 東崇町 惠化町 明倫町一、二、三、四丁目 東崇町 敦岩町 蓮池町 苑南町 臥龍町 蓮建町
◆十月三日 鐘路四 仁義町 禮智町 鍾路五 孝悌町 昌信町 鐘路六
◆十月四日 新堂町第一區 同第二區 同第三區 同第四區 同第五區
◆十月五日 上往十里町 下往十里町 杏堂町 議峰町 馬場町 沙斤町 敦岩町 城北町
◆十月六日 新設町 安岩町 龍頭町 祭基町 鐘岩町 淸凉里町 典農町 踏十里町 新馬場町 回基町 徽慶町 里沙町
◇備考 當日雨天인때에는 最終日의翌日도 順次延期實施함

密酒綻露者 四十七件多數
秋夕名節에摘發

【牙山】천안세무서관내인 아산군내에는 지난팔월이십삼、사양일간에 밀수단을전한것이 사십칠건에 달한다는데 이것은 단순한 추석명절의관계이라하며 천안 아산(天安、牙山)양군이 작년도에는 밀수건수가 오백여건에 달하엿고 금년도에는 벌도말이 되지못한 금월중순까지 밀수범죄자가 사백여명에 달한다는바 아프로 얼마가 증가될는지 알수업다는데 갓혹이나 피해하여 가는농초에서 밀수단계로 흑은 벌은이나 구류처분을 당하게되니 그들의실정이 가엽지안타고 할수업다한다

東新校運動會
明日普成高普서

시내수표정(水標町)에잇는 동신학교(東新學校)에서는 제이회 추기대운동회를 지난이십륙일개최코저했는바 비로말미암아 부득이 명십월일일은 예정대로시내혜화정(惠化町)보성고보운동장에서오전여덟시반부터 성대한 운동회가 잇슬터인바 학부형은 물론 일반의참관도 환영한다고한다

江華各普校運動會

【江華】강화군내각공립보통학교에서도 추계운동회를 다음과가튼 날자로 거행하엿다

江華公普 十月一日 仙源公普 同 五日 佛恩公普 同一日 吉祥公普 同一日 下道公普 同三日 內可公普 同一日 河岾公普 同六日 喬洞公普 同一日 [illegible] 海公普 同一日 [illegible]公普同一日

白石公普運動會

【楊州】양주군백석공립보통학교(楊州郡白石公普)에서는 추기대운동회를 삼십일동교정에서 연다한다

大小麥增産計畫
淸州郡農會에서立案

【淸州】농민으로서 그사명과의 무를 다함에는 증산농수(增産)에 목적을달로록 근로봉사하야 자급자족(自給自足)하는대따라 생활안정책을 도하는데잇다하야 충북청(忠北淸州郡農會)에서는 더욱히 이비상시에잇서 대소맥(大小麥)의증산을도코저 좌기사항을 려행한다고한다

一、麥의播種는 一直線北西同으로할것
二、麥의播種量은 六寸乃至八寸이으로할것
三、播種量은反當 精選種子五升以內로할것
四、肥料는 堆肥三百貫、草木灰三十貫 配合肥料五貫、配分肥料三貫을 必히施用할것
五、土入은氣候狀態와成育狀態에 依하야 四回以上勵行할것
六、麥에는 二毛作을勵行할것

三歲女兒轢傷
水仁線松島驛에서

【仁川】지난이십사일오후륙시분 인천항을출발하야 수원(水原)을향하든 수인경편철도가 송도(松島)역근방에일으자 부천군문학면청학리(富川郡文鶴面靑鶴里)백오십이번지 리지영(李智永)씨의장녀 간난(干蘭)(三)이가 송도역으로부터 일키로의 지점에서 [illegible] 녹상하야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一土의小作權을 兩人에各自契約
江華權門父子의藉勢

【江華】강화군 선원면 연리(江華郡仙源面延里)에 사는 권태규수(權泰奎)는 그의 아들인 권정리 [illegible] 송유토지를 동리 [illegible] 외를하고 때맛침 자기의 아들이 출타하야 고향에는 업슴을 기회로 [illegible] 에사는 [illegible] 에게 일경작의원을 밧고 소작권을이동해주기를 굿게약속하엿으나 뜻밧게도 그의아들이 돌아와서는 그소작권을 자기친척되는 권태옥(權泰玉)에게 로 넘기여주고 전기최명근에게는 일언반사도 말이업슴으로이에분개한최명근은부자사람을상대로 엄중한처결을 강화경찰서에 하소하야왓다고한다 [illegible] 하는자로서 수시정거할수잇는차 로서 [illegible] 녹상하엿다 는것이 가장수확되는점이다 [illegible] 청이라한다

經營에새曙光
懷多山講習所에

【金村】파주군교하면 연다산에(坡州郡交河面懷多山)잇는 연다사강습소는 종래로 당지빈곤아동의 유일한 기관으로 일반의 커다란기대를 가지고잇서왓든것이나 재정의 곤난으로 전도를 우려하여 왓섯는바 의외에도 지난팔월중순에 동 강습소의 전도서광이 비치는 히보가 들려왓다고한다 그는 양주군가뉴리 강진구(姜振九)씨가 전기강습소의일을 념녀하는 나머지에그 곳에잇는 저수보(貯水狀)잠개소 면모연대동진흥회(面模聯帶振興會)를통하여 칠백원의 재원을 동 의 [illegible] 기부하엿다고 한다 이로말미아마 전도에 서광이빗치는 강습소는 물론그지방의일반은 씨의미거에 감사함을마지 안는다고한다

長篇小說 花冠 【62】
李泰俊 作
金[illegible]澤 畵

생각만흔가을(十七)

머리는 가든해젓스나 얼굴은 그저 화끈거린다。 손끗는데굴 가서 찬물을 좋어노코 한참이나 얼굴을 식혀가지고 방으로 올라갓다。 밤에는 갓 소제를 하고 난 뒤이라 분홍가루만 넘어가는 석양에 연기처럼 뽀ー야케 아른거릴뿐、방동무는 한아이도 보이지 안는다。 책보를 차저 들엇스나 이러케 호젓하게 비인 방을 왜그런지 이내 버리고 나서기가 아까웁다。 창아프로 갓다。 벌서 기숙사이 옷까지 갈아입고 학교를 무슨 공원이나처럼 끼리끼리 손을 잡고 혹은 산기슭으로혹은 농장으로거닐며다산기슭에는 보라빗국화가 여기 저기서 바람에산들거린다。

『내가 조와하는 들국화! 오늘은 가다가 멧송이 꺽거가지고 가야지……』

그리고도 한참이나 서서 넘어가는 석양을 동옥은 바흔타보다 나와다 길동무는 한사람도 업다。 기숙사아이들이 『너 왜 느젓니?』 뭇는다 『그저…』 하였슬뿐이다 이런 기분에서는 혼자 걷는것이 도리혀 홀가분해 조키도 하다 차시간도 느젓지만 가을고개를 넘는 맛에 걸어서 오기로한다 여러날만에 넘어보는 고개다 등성이에 올라서니 긴 바람이 날카로워진 풀입들을 쏴ー하고 며지나간다 나려올때는 길옆버리고 풀벌호로 드려서다 보라빗들국화가 여기도 군데군데 피여잇다 첫 향종이는 꺽거서 옷고름에 꼿고 다음에종이는 길게 가지로 꺽어 한손에 들엇다 무슨 새떼처럼두런두런 피인 갈꼿도 나부낀다 버레소리도 여기 저기서 난다 『가을!』 이라 생각하니 숙제를 다 만들어노코 시계를 보아도 아홉시나 고작 예시밖에 되지 안는 밤긴 그 가을 공상하기조흔 그 가을이 오는것이엿다 오는것이 아니라 벌서 기퍼지며 잇는것이엿다 『이동이란 애가 어떤 아일가?』 생각이 문득 낫다 자기가 방인철이를 그리는 마음도 도로지 못살해버릴것이、못되는것을 느끼인다。 그러나 방인철이 역시 절과는 딴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도 나에게 인물라밧이나하면…… 그때 머리부터 냉정한 것이나 아닌가?』

동옥은 거름을 빨리 걷기가 실혀진다。 동옥은 어스름해서야 집북룩에 드러섯다 서너집 못 미처서다。 웬 회색양복에 새까만구두를 신은 신사 하나가 집을 찻노라고인지 길을 막고 서서 두리번거린다。 비켜서며 그의 아풀 지내치려 하니까

『미안합니다만……』

하면서 말을 부친다

『네?』

돌아다보록 모자를 벗어들고 잠간 주춤 인사를 하는 청년은 황재하 비슷한 모던뽀이의 기분이 느껴지는 경쾌한 청년이다。

『여기 일백칠십삼번지가 어듸쯤 될가요?』

동옥은 잠간 생각해가지고

『아마 요다음 골목이기 쉬울걸요!』

『네』

해수엇다

『이리 나서서 바른편으로 다음골목 말입니까?』

『네』

청년은 잠간 멈칫거리며 동옥을 유심히 본다。 그가 드른 동무화까지 송이를 헤이기나하는것처럼 자세 드려다보더니힐굿 다시 한번 동옥의 얼굴을 보고야

『미안합니다』

하고 모자를 쓴다。 동옥은 진작 도타서 와버리지 못한것을 후회하면서 집으로 드려오고말엇다。 집에는 동석오빠가 와서 가다리고 잇섯다。

『왜 느젓니?』

『어떠케 왓수 오빠? 언제떠나우?』

『온밤에…… 어서 가자 한시간이나 기다렷다』

하고 동석은 책보를 꿰서다방안에 드렷드려며 신도 못끄르게한다。

『어듸?』

『글세 나만 따라가……』

집안사람들은 모루

『어던데 그류?』

『글세 가보면 안다……』

『조흔데지……』

하고 동석는 너 [illegible]

肺病 特效 新藥 유ー고ー루

벌벌약을다쓰고、百方으로모든처료를하여도 낫지안어、고통신음하난患者는

肺病理想的治療劑發見

獨逸コッホ博士

폐병은 뇌점、부족증이라하는데 독일국コッホ박사가 세계적위대한발견을하야 전시를진동케한결핵균이 폐、파먹음으로 생기는두려운 전염병인바 폐병환자의 당국의 엄미경으로 검사하면 약삼십만개의 놀라운 결핵균이잇다 内務省統計에의하면 일년간에 약오십만명이 폐병으로신음하야 그중 약십칠만의 귀중한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악질이다 폐병에걸녀도 초기는잡복성이만해서 여간 집중키어려움으로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 알기쉽다 와가리 부지중 병균은 지독히활동하야 이기 삼기가되고만다 실상 폐병균가리 여러가지중세를 이르키는병은업다 그러나 결핵균만 업새면되는데 종래에는 아모효력도업는 부적당한치료법을과신하야 공연히 치료할때를 놋치고 폐병은 걸니면죽고 살지못한다고 한탄만하엿다 어시호 有恒社藥品部에서는 불행한환자를 구하기위하야 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 신발명의 고급폐약 『유ー고ー루』를 복용하면 살균과 배독작용으로폭약후기분이 대단상쾌하고 무중이나 식욕이 증진하고 구미가생겨 완고한 열도나리고 원기가 나서 혈색이 조와지고 쇠약을 회복

하야 살이 오르고 기침、도 오한、숨가뿐것、피로하는 중세 나、혈담、기슴 아푸고 뇌가 여러 결리고 사지가리 아푸고뇌곤한증세에 綜合的으로 作用하야 緊効를보나、벌벌약을다쓰고 백방으로 모든치료를하여도낫지안어고통하는분은 생명은귀중한것입니다 일시라도속히 高級治肺藥『유ー고ー루』를 쓰시오 폐병이아니고 폐가 약하시거나폐병의 의심이잇는분은 반드시예방적으로 복약하시오

肺病特効新藥 유ー고ー루는 東京帝國大學醫學部 敎授醫學博士高橋順太郞氏의創、立同藥學科敎授 藥學博士下山順一郞氏와 協力研究한結果 完成된結核治療劑를 主藥으로한데는 아무副作用이 이르키지안코 鷄에이르러徐徐히 有効成分에 分解되여緩和한作用을함으로 胃腸의刺戟症狀을 묻지안코 滋性이업슴으로連服하야도 조후高貴藥으로臨床上 左記諸症에服用하여 肺結核患者가 食慾이增進되고 體重을增加하며 盜汗及喀痰을輕減하야 喀痰中의結核菌을 殺滅하는强力神效한 作用이 確認되여사 오니安

肺病患者의 一大福音 高貴藥擇 유ー고ー루로 全治更生하라! 註文服藥하시사全快하시옵소서

병이경하고 중한것은 하여간에 폐병뇌점부족증 기침腦熱痼하야 치료하기에힘드는 병은 업다고세상사람이다들이놓하고잇다 그것은 병자가 바른치료를하지안키때문에 그대부른 불행한결과를보는고로 병자 자신은물론이고 주위에잇는사람까지도폐병은 고칠수업는병이라고 두려움게생각하는것이 현재의상태엿다 재세상에 무수한치료법이나 약이 잇서 제마다 뻔뻔하게도의강부회(牽强附會)한 誇說을 가지고 구세주(救世主)인드시 나떠드려 그러치안어도 속기쉬운 약한병자를 교묘히꼬러하는자가잇기때문에 병자는 병보담도돈을짐적 곤난을바더라도 정효력이잇다할지라도 그때는벌서금전이업서 병을곳치못하고 볼쾌하지 이되는사람이 열이면아홉명은잇는형편이엇스니 실로한심한중대문제이다

이약저약으로속아고통하는분이나 자기몸이폐병이나아닌가의심잇는사람은 예방적으로쓰시요 혈담밧고 피로하고 몸이향상되곤고 가슴이아푸고 등이가당하고구미가업고 갈비가결니고 식은땀이 주사나 한약기타여러가지치료로 안되는분은 꼭쓰시요 당신의살길은新發明한高貴治肺藥유ー고ー루를쓰는때에열니오

潛伏性結核、初期結核은 엇더한病狀을나타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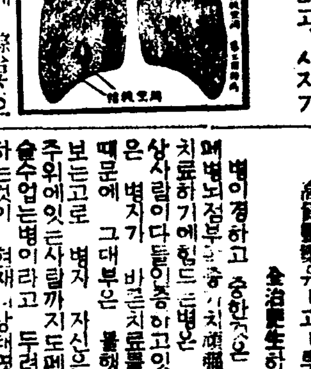
結核에는 그외潛伏性의時期 또는 初期에發見하야 이것을 全治하는 것이가장緊要합니다。이潛伏性 또는初期의結核病은 엇더한症狀이나타나면그것은決코 똑갓흔한가지가아니오 여러가지로나타나는것입니다。처음에는이 病의專門醫師까지도 神經衰弱이나 或은十二指腸으로 誤診하는수가흔히잇는 것과갓치 病狀變化에엇던때는 大端困難합니다。明白히結核菌의 徵兆로診斷할수엇 습니다。그러나다음과갓흔 病狀이보이는때는

一、조곰도이러하다는原因도업시 體重이주러지고몸이매우야위지는것
二、口味가떠러지고 胃아토니ー症狀으로되는것이고한慢性胃腸의病氣에서셰 기는 것이적지안습니다。
三、몸이늘노곤히괴롭고 무슨일에라도즉시염증이생기는것。 곳엇개가묵직하 고 아푼것。
四、精神이 한곳에 바로잡히지안코마음이 점점하고 不安하고우울한氣分에 끌이잘나는것。
五、잠드는것이 편치안코 잠이잘안오고 잠이들면꿈한쪽만꿈이고 睡眠不足에 롱괴롭는것。
六、天氣에 對하야서도 몹시過敏하야 날이호리기만하면頭痛이나고 그로 因하야 消化不良、倦怠感이생되는것。
七、心悸亢進、조고마한일에도 가슴이울렁거리고갈아젓안는것여름철이라 도手足이찹찹하며골치기렁비이여지고정신이앗득하야지는것。肺尖加答 面心臟衛音界의擴張이라는것。
八、가슴이압흐며 그리甚하지안한筋肉痛과神經痛이생겨서 그것이때때로 리저리옮마단이며압흔것이手足에도생기는것 胃腸變을이르키는것。
九、視神經이 疲勞하기쉽고 視力이어두워지는것以上과가흔 自覺症狀이생 긴사람은 潛伏또는初期結核의疑心이만으며 그中에는이미더욱甚하야저서 第二期쯤으로進行하는것입니다。

適應症 肺結核、肺尖加答兒 肺炎、結核性腹膜炎 肋膜炎等에偉効

藥價 初期用 一五 二期用 二十 三期用 二十

肺病專門藥유ー고ー루總發賣本舖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東拓前)
有恒社藥品部
電話本三二一九・振替京城七九五六番



秋期服藥劑에 前代未聞의强腎秘藥!

腎氣强壯劑로 天下第一
腎氣發動・早老防備에
元氣旺盛・神明朗에
陰陽雙補・强壹增加에

强腎丸

成功을 바라고 幸福을 願하는者는 몬저 强腎丸을 服用하야 精力을涵養하라。보라! 現代의 大實業家大政治家는 모다 絶倫한精力家이다。此秘劑는 一時的興奮劑가 아니요 肉體의 元氣를 完成하며 精神을 刷新케하야 更少年이되며腎氣가發動하고 身體가 强壯케되는것이다。先天不足하고、神經衰弱하고、腎氣不發하고、下焦濕冷하고、氣血이偏虛하고、貧血하고記憶力이 減退하고 消化不良하고、身體疲瘠하고、手足厥冷하고、精力衰弱하고、腎氣減退하나 肺弱한人은 此際에躊躇말고 一劑를 服用하면 元氣가 益益充實케되며、形容이 豊滿케되여 滋益하는 靑春의源泉이 湧함이 업스며、따라 早老의老衰를防備할수 잇고 老人도腎氣大發迴轉하야 人生의興味가 津津케될것이다。

藥價 强力用一劑 拾參圓 重症用一劑 九圓 註文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東拓前)
發賣元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電本三二一九番

梅毒 先天梅毒、後天梅毒一、二、三期梅毒全快感謝狀이踏至 變型性梅毒、狼瘡、硬性下疳、橫痃、濕疹等에偉効

독일ホフマン博士가發明한梅毒菌엔
梅毒新藥 日東도구도루丸

매독은 창병、당창이라고도하야 코나신이떠러지는 무서운전염병인데 부모나선조의게 매독이잇서서 그병이 자손에게 유전(遺傳)된것을 선천매독이라하며 남자가 화류계 녀자에게전염되야 가정부인에게까지 전염식히니 여것을 후천매독이라하다 전염되는즉시는 그다지 고통치안음으로 그대로두는분이 잇지마는 이것이 영구히매독으로 고생할원인으로 그동안벌서균은 매일이활동하야 피부나 근육이나 내장신경중추을 몰론하고 사람의 어느곳이든지 색여먹는참 두려운병이다 어병에걸니면 의례히 옥공옥호를차즈나 일시적이지 다시재발하는것은 경험한자가 더욱잘아는일이며 유명한독일박사도 몽공옥호를 만호환자에게 실험한결과 매독의재발을절대로막지못하야 이고하야 매독에는 초기、이기、삼기가잇는데 옥공옥호나 야약수은등별별약으로 근치가안되고재발하야 고통하는분은 하로밧비 유명한高級梅毒藥일동도구도루환을쓰시요 부부간 한사람에게매독이잇스면 양인이모다 자손에까지 유전한다는것을 생각하시오 매독은 자기뿐만아니라 독이 자손에까지 유전한다는 것이 제일악질입니다 코가헐고붓고 목이잠기고 눈이히미하고 머리가빠지고 팔다리가 쑤시고 머리속이허러 부스럼이나고、몸에 여기저기 종기가터지고 국부에 부스럼이나가거나 헐고 가렵고 선천매독 삼기를 지난 變型梅毒(藥毒疹)당창 하감 요고네등 매독일절에쓰시오 구감기라 부작용은 절대로업고 음식은 술、기름진음식만 가리면 됨니다

藥價 初期用 三圓 一期用 五圓 三期用 九圓
梅毒特効藥 日東トクトル丸本舖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東拓前)
有恒社藥品部
振替京城七九五六番・電話本三二一九番

猛烈한殺菌力에驚嘆!

독일ナイセル博士가世界的新發明한淋毒菌엔
强力殺菌治淋劑發見
淋疾患者의福音!

임질약 (일로롱림약)

엇더한惡性의淋疾이라도낫는다!

淋疾은 合理的으로 特効藥만쓰면 곳낫는다 日東淋藥은 尿道의外面、內面에서 淋菌을完全히殺滅하는 特効藥이다。服藥後數日에全快하야다는感謝狀이 踏至하고잇는것이 充實이 保證하는바이다。如何히頑固한淋菌도到底히 抵抗치못하고 撲滅을當하는 合理的治淋劑어오 니 躊躇말고 服用根治하라!

남녀 림질대하중에 한번 걸니면 여간 낫기어려워다그 치료법과 약어 수천가지가되나 조금도 효력이업거나 다소 효력이 잇서다할지라도 또다시 재발하야수년 혹은 일평생을두고 고생하는사람이만타 약만바로마지면 단박에 병이떠러지는것이고 효력이업는약은 아모리 만히 오래먹는다할지라도낫지안는것이다 이병 에 걸려면본인의고통은물론이나 애매한 가정부인에게전염하야 병균이 자궁을침범하야 역시 생산을못하야 다른의가리 결코 위가상하지안는다 어약 은 바로 살균을하야 소변으로흘려보내는 강력(强力)한 작용을하는 영약이오니 하로밧비쓰시오수십번먹으셔도 재발한원고만성림질여자에 하중、적대하、황대하、백대하질독성방광염、산증、자궁염、자궁내막염、요도협착이낫는신약이요

藥價 急性用 三圓 慢性用 五圓 惡性用 九圓 註文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東拓前)
有恒社藥品部
電話本三二一九番 振替京城七九五六番

朝報案內

掛時計日賦販賣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illegible]

募集 [illegible]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資本金參千萬圓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府營業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음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總販賣部 京城鍾路警察署前
朝鮮日報販賣局 電本(2)一五[illegible]

第一劇場
旅の陽炎
奥樣に知らす勿かれ
讀賣ニュース 多數上映
電光一七五五番

經濟解說 獨逸經濟統制 ⑥

金融統制

生產과 分配와의 完全한 統制는 또 金融의 完全한 統制를 必要로 한다. 一九三三年 히틀러―政權이 樹立되엇을때 獨逸의 諸銀行에 對한 國家의 統制는 些少한 例外를 除外하고는 經濟的이엇다 「라이히스」銀行은 一九三三年의 銀行恐慌을 克服하기 爲하야 唯一의 例外를 除外하고 一流銀行全部의 株式을 所有하고 銀行統制를 行하지 아니하고 안될 必要가 잇섯다 國家 戰後의 「인플레슌」時代에 創設된 銀行을 所有하야 經營하고 또 府縣銀行은 거의 全部 市立으로 되어잇슴으로 히틀러―政權이 出現할때에는 獨逸의 金融機構는 完全히 國家의 統制에 服하고 私的部門은 거의 存在하지 안엇다

그러나 히틀러―政權以前의 獨逸政府의 政策은 銀行이 國家의 干涉을 받지 안는데 잇섯다 事實 銀行의 株式이 政府의 掌中에 歸하야 잇서도 行員人物에는 거의 變化가 업섯고 그 經營方法도 從前과는 큰 다름이 업섯다 이에 反하야 나치스政府는 所得銀行株式의 一部分을 賣却하얏스나 從來의 政府의 主義와는 다르게 銀行不干涉을 標榜치는 아니하엿다 于先 第一步로 政府는 利子率을 決定하얏다 國家 各州各市의 發行하는 一切의 長期公債의 利率及 都市, 農村의 擔保貸付利率을 引下하얏고 銀行預金利率은 商業上其他의 貸出利率과 共히 政府의 손으로 決定하얏다

獨逸에 잇서서 國家의 財政은 모두 政府의 必要때문에 保證되어 잇슴으로 이 目的때문에 私的의 新規社債의 新規發行은 一切禁止되고 잇다. 株式社債의 發行은 政府의 特別許可가 업스면 안된다 그리고 이 許可는 거의 모두 政府의 目的, 卽 四個年計劃下에 잇서서 軍需品工業代用原料의 製造에 從事하는 會社에 對하야 준다. 그러나 金融機關에 對한 政府의 支配는 消極的手段에만 限하지 안는다 卽 實際에 잇서서 政府는 銀行에 對하야 一定額에 對한 「크레짓트」許與를 命하며 或은 株式을 政府가 定하는 一定한 條件으로 買收할 것을 命한다 大體의 境遇에 이런 「크레짓트」設定又는 會社參加에 對하야 國家에 依한 一定한 保障이 賦與되어 잇다. 또 이밧게 銀行은 所有資金을 各種의 政府證券에 投資하고 또 中央銀行…

政府 支出하기 爲하야 發行하는 證券에 投資하고 잇다 一切의 銀行은 그 自體가 政府의 機關인 「라이히스」銀行으로부터 … 잇고 上 金融統制의 全計畫遂行의 最高中樞機關이다 一切의 私營事業의 金融을 指導하고 統制하는 것도 「라이히스」銀行의 任務이다 … 「라이히스」銀行은 事實上 介入이엇시는 … 何等의 大取引도 할수업스며 契約을 締結하지도 못한다 이에 「샤하트」博士가 經濟相에 任命되기 以前 「라이히스」銀行 總裁로서 經濟統制를 行하고 잇섯든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다 獨逸 「라이히스」銀行의 權力에 比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이히스」銀行이 獨逸經濟에 잇서서 占하는 地位는 絕對的이다

利潤統制 獨逸에 잇서서는 … 利潤도 利的動機와 共히 利潤그것도 相當한 程度로 排除되어 잇다 價格과 賃金이 公定되고 原料配定이 되고 技術的으로 一定하고 取引의 量이 政府의 指令에 依存되어 잇는限 利潤이 一方的인것은 말할것도 업다 그리고 적어도 利潤이 生하면 이에는 一定한 制限이 잇다

第一=相當한 程度의 增稅로 中法人에 對한 課稅가 增徵되어 왓다 어에 服從하지 안는者에는 死刑을 包含한 嚴罰(爲替統制違反)에 對한 稅務當局의 增稅手段은 非常히 嚴峻하여젓다

第二=資本市場은 政府의 完全한 統制下에 잇슴으로 工業家는 所得利潤의 大部分을 新規施設의 費用으로 使用하지 안으면 안된다 이러한 支出이 通常狀態下에서는 收支가 맛지 안는다 따라서 撤回될것이 잇슬 것이면서도 工業家는 엇지할수업다

第三=如何한 會社라도 大分의 利益을 … 許하지 안는 … 私的契約은 政府에 依하야 … 法律的行政的手段에 依하야 … 나치스의 … 市民의 自由의 保護法이 存在치 안흠과 同樣으로 … 「獨逸에 잇서서는 市民의 取引에 對한 法律的制限이 업다」라는것을 記하지 안흐면 안된다 此種의 全體主義는 每日新聞에서 法律의 明文을 훨신 超脫하야 行하고 잇다 (계속)

各紡績會社에서 朝鮮棉花着眼
國內原料로서 重要性加重! 共販實棉購入希望

朝鮮에서 鐘紡、東紡의 進出은 所謂南棉計畫에 呼應한다기보다도 朝鮮의 企業條件의 活用에 主眼을 두고 從하야 朝鮮棉花의 共販에도 各地에 實棉處理工場을 가진 朝紡外는 遊離한대로 잇섯스나 時局에 依하야 國內原料인 朝鮮產棉花의 重要性이 加重케되어 最近此等紡績業者가 朝鮮의 棉花共販實棉購入者가 되고저하는 態度를 示한것이 極히 注目된다 本年度부터는 朝紡外에 京紡이 黃海道方面에서 一部의 實棉購入을 行키로 되엇는데 鐘紡東紡도 共販으로부터 實棉準備의 希望을 當局에 表明코잇서 棉花計畫上 자못 期待된다한다

棉花運賃 五割引上決定

農林局과 朝郵, 大阪商船間에 契約된 棉花海上運賃은 過般來雙方間에 運賃引上을 折衝中이든바 朝鮮米運賃의 引上, 前年의 棉花不作에 依한 運賃不動其他 事情을 考慮하야 前年度運賃의 五割引上을 決定하얏다 卽 木浦、阪神間 基準新運賃은 如左

棉花(石) 四圓八十九錢
棉實(石) 五圓二十八錢

本年度부터 朝郵、商船外에 尼崎汽船도 參加키로 되엇다

鰮粕運賃二割引上?

鰮粕運賃引上은 過般來油脂聯合會側은 三割五分(二十六錢)引上을 主張하고 油脂聯은 一割五分(十錢)引上을 固執하야 二十九日會議에서도 遂히 決裂되어 結局 總督府裁定에 待키로되엇다 裁定運賃은 大體 二割(十五錢見當)引上으로 보이는데 十月一日부터 實施하리라한다

小包郵便物取扱數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小包郵便物의 引受總數는 二十一萬二千五百二十五個이요 配達總數는 三十一萬七千五百二十三個인데 前年八月中의 取扱數에 比較하면 引受는 一割九分 配達은 二割六分이 各增加이다

事變以來의 物價 卸、小賣別無影響
總督府社會課調査

總督府社會課에서는 支那事變勃發以來의 朝鮮內의 物價動向에 對하야 調査하얏는데 大體歌調를 示하야 局地的으로는 若干騰貴를 示하엿스나 總指數는 平靜하다 卽卸賣物價指數는 六月 二〇[illegible] 七月 二〇[illegible] 八月 二〇[illegible] 로서 例年의 季節的動向으로서의 僅少한 騰貴를 보앗슴에 止하고 事變에 起因한 上昇은 認할수 업다 또 小賣物價는 六月을 一〇〇으로하야 七月 一〇〇·七 八月 一〇一·三 九月 一〇一·三 이 되어 八月까지는 僅少의 上昇傾向을 示하엿스나 暴利取締令實施의 結果 九月에 入하야 若干低下를 보앗다 騰貴한것은 卸賣에 잇서서는 木材, 大麥, 鹽이 主된 것으로 이는 輸送制限과 北支擴大의 輸入杜絕에 因한것이오 또 小賣로는 鷄卵, 人蔘이 特히 騰貴되엇스나 其他生活必需品은 거의 影響이 업고 九月에 入하야서는 白米砂糖과 如한것은 前月에 比하야 低落되엇다

發電用汽罐取締强化
卅日府令公布

發電用汽機汽罐의 取締에 就하야서는 從來朝鮮電氣事業令施行規則及朝鮮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規則의 規定에 依하얏스나 總督府는 卅日府令第百四十七號로서 朝鮮發電用汽機汽罐取締規則을 公布하고 一層取締强化를 計圖키로되엇다 同規則은 十月一日부터 施行될것인데 그 要項은 如左하다

一、發電用汽機汽罐의 取締官廳은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規則第六條第一項에 依한 境遇는 道知事 其他는 遞信局長으로 함(第二條)
一、汽機、汽罐을 設置코저할 境遇는 構造明細書, 配置圖, 構造圖, 資料等을 取締官廳에 提出할것 取締官廳이 必要타고 認할時는 그 設計變更을 命함을 得함(第三條)
一、取締官廳은 每年一回檢査吏員을 派遣하야 汽機、汽罐의 檢査를 行케할것(第七條)
一、一年以上汽機、汽罐의 運轉을 休止코저할時는 遲滯업시 取締官廳에 屆出할것 休止中의 汽機、汽罐을 再使用할 境遇도 가틈(第八條)
一、汽機、汽罐의 工事又는 使用에 對하야 危險念慮가 잇슬때는 取締官廳은 其除去又는 豫防에 對하야 必要한 命令을 發함을 得함(第九條)
一、汽力發電所에는 汽機、汽罐主任者를 設置할것(第十條)
一、罰則 百圓以下의 罰金又는 科料(第二十條、二十一條)
一、本令施行의 際에 現在存置한 汽機、汽罐에 對하야서는 本令施行日부터 六個月以內에 第三條의 書類를 提出할것(第二十三條)
一、第十條의 汽機、汽罐主任者는 六個月以內에 選任할것(第二十四條)

이와 同時에 告示第七百八號로 取締規則第十一條의 汽機汽罐主任者…

株式現物店 總數九十店
◇―許可制를 研究中

總督府는 株式現物取引의 無統制인것을 抑制키爲하야 株式現物店의 許可制度에 對하야 研究中인데 總督府調査에 依한 全朝鮮의 現物店現勢는 如左하다

一、取引高 三百八十四萬一千九百九十四株 九千三百八十九萬六千百十九圓
二、現物店數 九十店 그內容은 如左함

▲京畿一五 ▲忠北一 ▲忠南二 ▲全北七 ▲全南九 ▲慶北一五 ▲慶南一五 ▲黃海二 ▲平南一〇 ▲平北二 ▲江原一 ▲咸南三 ▲咸北八

金現送中止
年內現送無用?

【東京電話】生產力擴充과 軍需關係物資購買에 伴하야 本年度의 入超累計는 實로 七億八千萬圓을 突破한 同時에 政府는 三月以降 右入超를 調整키 爲하야 巨額의 金現送을 實行하얏섯는데 最近의 貿易은 出超로 轉하고 그結果 一個月間은 現送을 中止하고잇서 今日의 爲替許可申請狀況으로보아 突發的需要가 생기지안는限 大體年內의 金現送은 不用이겟스므로 中止할 意向이라한다

下旬貿易出超 三千七百萬圓

【東京電話】大藏省發表=九月下旬貿易은 如左히 三千七百三十四萬圓의 出超이엇다(單位千圓)

輸出 一一八、九九四
輸入 八一、六五四
出超 三七、三四〇

兼二浦製鐵 大增產計畫

日本製鐵兼二浦製鐵所에서는 銑鋼一貫作業에 依하야 月產九千噸을 全能力으로 動코잇는데 時局에 鑑하야 增產計畫에 進出하야 目下工事를 急히하고잇는바 그 增產은

◇熔鑛爐一基 三百五十噸 處理增設 本年十一月完成
◇混銑爐一基 四百五十噸 處理 十三年末完成
◇平爐改造 五十噸 處理三基를 改造 十三年中完成

의 各設備로서 十三年中에는 完成하고 一箇月產五千五百噸의 增產인즉 全能力一萬四千五百噸으로 될 豫定이며 厚板 大型鋼의 壓延販賣用鐵鋼도 大增產하리라한다

昭和기린增產中止

朝鮮麥酒의 增產과 呼應하야 昭和「기린」에서도 永登浦工場의 倍大計畫에 着手하기로되어 이미 그擴張工事는 大倉土木과의 間에 四十六萬三千圓으로서 落札되고 一部整地工事에 着手中이든바 臨時資金調整法에 依하야 右施行은 中止키로 決定하고 大倉土木間에 請負契約을 解消하얏다 資金調整實施의 朝鮮서의 最初의 犧牲으로서 注目된다

朝鮮麥酒의 增產計畫은 着手期가 約一個月일 뿐만큼 目下建設中으로 其挽込도 朝鮮에의 同法實施에 엿서 十月一日로써 關係로 旣定計畫대로 實行되어…

世界農產物豐作 需給前途와 景氣 (下)

(承前) 그런데 一九三七―三八年度에 잇서서 豐作이 實現케되면 輸出國으로 再轉할것이 明瞭한 터이다

一九三七―三八年度의 米國小麥의 收穫은 八億九千萬부쉘에 達할것으로 前年度의 六億二千六百萬부쉘에 比較하야 二億六千四百萬부쉘의 大增收로 된다 國內消費量을 除하고도 一億五千萬부쉘가량은 輸出을 할수잇스리라고 豫想된다

이러한 米國輸出餘力이 世界市場에 주는 影響은 一九三五―三六年의 世界輸出高는 四億七千四百萬부쉘에 不過한 點으로보아서 決코 輕視할수 업다

米國農務省의 豫定에 依한 蘇聯及支那를 除한 一九三七―三八年度 世界小麥生產高는 三十九億부쉘乃至 三十八億五千萬부쉘로 豫想된다 三六―三七年度에 比較하야 三億五千萬부쉘乃至 三億부쉘의 增加로 보고잇다 今年七月一日現在의 滯貨의 豫定은 五億五千萬부쉘임으로 三七―三八年度의 世界小麥의 供給高는 四十四億五千萬부쉘가량에 끄칠것으로 三六―三七年度의 四十二億부쉘에 比較하면 二億五千萬부쉘의 增加이다

小麥의 世界消費高 (蘇聯及支那量除外)는 最近 一個年平均의 三十七億六千五百萬부쉘로 보면 三八年度末의 滯貨는 差額五億六千五百萬부쉘이 된다 今年七月一日의 世界滯貨보다 五千五百萬부쉘의 增加이오 三六年七月一日의 七億六千萬부쉘에 一步接近하는 셈이다

恐慌再來念慮업스나 景氣는 天井

이러한 需給推察으로보아 明瞭한바와 가티 小麥의 滯貨減少는 드디어 끄치게되고 다시 增加의 趨勢에 잇슴은 다투지못할 事實이다 그러나 이로써 곳 前途를 悲觀할 必要는 업다 왜그러냐하면 軍擴을 動因으로하는 工業景氣의 上昇이 直接間接으로 農產物消費를 刺戟하야 依然 農業景氣의 背景으로 되고잇다 어쨋든 工業景氣의 下向期에 農產物의 過剩을 齎來한 先年의 農業恐慌時代와는 그 基本情勢를 根本的으로 달리하고잇다

小麥과 如함은 三七―三八年度의 增產으로 漸次需要가 通常化하여진 程度이어서 아직 生產의 過剩期에는 드러가지 안코잇다

現在는 三八年七月의 豫想滯貨는 前述과 가티 三七年七月보다 五千五百萬부쉘을 增加하리라하지만 三六年七月의 七億六千萬부쉘에 比하면 一億七千五百萬부쉘이 적다 그리고 小麥의 輸入國인 歐洲諸國의 食糧貯藏의 傾向은 戰爭의 危機深化에 伴하야 더욱 强하여질것으로 小麥에 對한 需要는 普通消費以上에 達할 傾向이어다 따라서 小麥의 需給은 顯著한 增產에도 不拘하고 크게 惡化되지안흐리라한다

×

그러나 棉花는 小麥에 比하면 增產이 顯著한만큼 問題인데 米國의 棉花對策에 依하야 低價는 下支될터임으로 滯貨增의 壓迫을 밧으면서도 다시 棉花恐慌을 招來할 念慮는 업다

×

砂糖은 三六―三七年度 生產은 三千八十萬噸으로 前年度보다 百九十五萬噸의 增產이 豫想된다 卽 期末持越高는 九百十三萬噸 前年度보다 五十一萬噸의 增加豫想으로 期末의 持越高는 오래 減少를 繼續하여오든 것이 轉換할것인데 이는 世界協定이 成立되어 잇슴으로 市況에 對한 增產의 壓迫은 實際上 緩和된다

×

如와가티 各種農產物은 顯著히 增產됨에도 不拘하고 軍擴景氣에 依하야 市況의 逆轉은 實際上으로는 相當히 緩和될터이나 需給의 基調가 生產不安, 滯貨減少時代에서 滯貨增加時代로 轉換됨은 產物景氣의 抑壓을 暗示하는것에 不外하다 (完)

鮮銀의 地金買入
每日平均十三、四萬圓

新產金令에 依하야 朝鮮의 地金指定買入業者는 鮮銀만에 限定되엇슴으로 最近鮮銀에의 地金持込이 激增하야 每日平均十三四萬圓의 買入을 行코잇다 鮮銀에서는 이에 備하야 分析設備의 擴張과 係員의 增加를 行키로되어 技師一名을 새로이 採用하얏다 事變으로 撤歸한 靑島支店員의 一部로 本店地金係에서 應援코잇다

魚油定量入札

魚油九月分 定量入札은 再入札이 不調에 終하야 日本油脂間에 隨意契約으로서 三圓六十二錢에 成立하얏다 數量은 二萬四千七千罐인데 月初의 不定量에 比하야 經常十六錢低로서 注目된다

果實收穫豫想

今年의 果實收穫豫想高는 如左하다

	植栽本數	收穫豫想
苹果	[illegible]	[illegible]
梨	[illegible]	[illegible]
葡萄	[illegible]	[illegible]

中央無盡에서 一萬圓會開始

中央無盡의 一萬圓高額無盡은 總督府認可를 得하얏슴으로 十月부터 開始키로 決定하얏다 그手數料는 當局의 意向도 잇서 五分으로 引下키로 決定하얏다

發明展覽會
―十月十九日부터 商工獎勵館에서―

朝鮮工業協會主催發明展覽會는 十月十九日부터 同二十五日까지 商工獎勵館에서 開催하기로되어 目下準備中인데 出品物은 大部分 日本內地로서 出品케되엇고 目下까지에 朝鮮內로서의 申込은 約五十點에 達하얏다

寸鐵

○ 朝鮮內各紡績工場에서 朝鮮棉花購入을 希望한다고 當然한일
○ 資金調整法은 實施되기도 前에 不渡手形沙汰
○ 中小商工金融의 圓滑은 언제나 바랄수잇슬가 바라는便이 잘못인가?
○ 事變以來의 物價는 別로 影響이 업섯다고 影響이 잇더면 큰일
○ 全朝鮮에 九十店이나되는 株式現物店은 하로바비 統制할일

取引停止

(九月廿五日) ▲精米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九六 和泉精米所 石渡 ▲不詳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〇八 森다쓰 ▲雜貨 京城府本町四丁目 本町마키트 井上光三 ▲不詳 京城府敦岩町三八九의十一 金忠植 ▲不詳 京城府吉野町一丁目 田中龍一郎 ▲不詳 京城府永樂町二丁目四〇 仲村勝太郎 ▲不詳 京城府本町通二丁目 口米八 ▲카페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二 橫岡照代 (九月廿七日) ▲鑛物 京城府旭町八十二 京城工作所 衣斐制作 ▲時計材料商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日比壽亨 ▲絹綿物商 京城府鍾路五丁目三八二 朱金鎬

輸出禁止에 大麥指定

大麥은 現在輸出中止로써 出荷主의 諒解下에 自發的으로 輸出許可手續을 中止코잇는데 同會公布와 同時에 正式으로 禁制品으로서 指定되리라한다 … 同令施行令은 一兩日中에 公布되며 同時에 制限 又는 禁止할 輸出入品目이 發表될터인바 右品目中에는 大麥이 包含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 土建協會事務所新築=京城土建協會에서는 事務所를 新築키로 決定하고 長谷川町 京城支店跡의 官有地貸下의 諒解를 得하얏슴으로 불원비야 着工하리라고
○ 土建協會懇談會=京城土建協會에서는 十月二日懇談會를 開催하고 西本總督府商工課長으로부터 資金調整法에 關한 說明을 聽取하리라한다
○ 對北支貿易視察=總督府商工課星子技師는 天津서의 朝鮮商品見本市에 이어서 北支와의 貿易關係를 調査視察키爲하야 近間 二週間豫定으로 北支現地에 出張하리라고
○ 協同油脂工場地決定=…

始政記念日 銀行會社休業
取引所는 區區

十月一日은 始政記念日임으로 銀行會社等은 臨時休業하나 取引所證券部는 前後場共히 休會 米豆部는 前後場共히 平日대로 立會 後場만休會키로되엇다

東新市勢期待

對支對英關係와 當局의 … 月末立會의 市場은 暗雲에 가리워 人氣惡化하야 崩落되고 今前場은 寄後急反撥이고 新甫는 … 北支戰勝市勢에 依하야 彼岸에 天井을 첫다고 보는 人氣도 잇고 一方資金調整法에 依하야 … 前天井觀이 잇서 高價買는 …

株式 急落一巡 反撥

今日의 市勢 (三十日)

前場反撥 昨後場崩落大引後 今朝도 東新五十錢低인 百四十一圓八十錢, 鐘新一圓低인 百二十八圓四十錢, 大新一圓低인 七十九圓三十錢, 朝新一錢低인 三十二圓五十錢으로 一齊崩落寄後 …

後場少弛

後場은 東新은 百四十四圓六十錢, 鐘新 百三十一圓九十錢 …

突込後急反撥

今朝寄付도 英國의 支那에의 軍用機輸送, 米國의 … 不安이 …

市場小感

株 … 好材料緘入으로 …
米 … 昨日의 阪地反發은 …

國債 無刺戟으로 平凡

期米 少軟裡에 越月

前場低弛 今朝는 阪地先限卅一圓廿九錢인 …

當落後 中先高

朝取期米取組內容

新甫發會

拂下成績不良

第二次 政府米拂下는 前回보다 … 二十九萬石에 對하야 겨우 七萬餘石밧게 拂下되지못하야 그 成績이 頗히 不良하다 …

各地新甫輸豫想

▲大阪 ▲神戶 ▲名古屋 …

群山新米價格

正米 來月待로 保合

京城保合 …
仁川不變 …
大邱保合 …
群山小化 …
木浦保合 …

康益夏 期米 仁川

仁川 仁 期米 紺谷取引店 案內呈進

京城 證券部 期米部 仁川 福 吉村取引店

東 趙俊鎬取引店

京城物價 (卅日)

▲白米(斗、單位錢) ▲麥類(二斗、單位錢) 多麥 …
▲肥料 …
▲紙物 …

今日財界 (三十日)

▲米 仁川期米先限 大阪期米先限 …

海外經濟 (三十日)

銀行券

手形交換·金利

金價

對外爲替

正米·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鍋油粕·麥粉

生絲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朝取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實賣高 [tables illegible]